

『醫方類聚』의 서지학적 고찰

- 『의방유취』의 편찬과 조선전기 醫書 출판-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팀 안상우

導入

『醫方類聚』는 세종 때 1차 완성된 후 성종조에 간행된 국내 최대의 한의방서이다. 당초 365권에 이르는 규모가 세조대 재편 과정시 100여권이 줄었지만 현재 전해지는 양만 해도 260여권에 달하는 거질이다. 이 책에는 200종 가량의 의서와 의학관련서가 인용되었으며, 당, 송, 원, 명대 초기까지의 중국 의서와 고려, 조선초기까지 고유의학의 성과를 담고 있는 당시 최고의학 수준이 집대성된 의서이다.

그러나 성종대 초간 당시에도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30여질 밖에 인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선조대 이후 전쟁 중 약탈당한 1질이 일본에 전해졌을 뿐, 그 이외의 원본은 현존하지 않고 있다. 『의방유취』는 대략 18세기 후반인 정조대 이후에는 의서에 거의 인용되지 않거나 인용되었더라도 『東醫寶鑑』을 통한 재인용에 불과하여, 이 시기 이후로는 국내에 원본이나 관련 자료가 이미 거의 인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의보감 이후 조선 후기 한의학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거의 잊혀졌던 『의방유취』는 근세 일본 多紀家の 보존 장서를 喜多村直寬이 복간한 聚珍版 발행을 계기로 우리 나라와 중국에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역시 한정된 수량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하여 한, 중, 일 등에 남아 있는 몇 부조차도 貴重本으로 분류된 형편이다. 1965년 취진관을 대본으로 필사 영인 작업¹⁾이 이루어졌고, 80년대 이후 중국 교점본의 다량 인출²⁾ 및 북한에서의 국역본 발간 등으로 점차 동양의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간 일본에서의 失傳의서의 採輯復刊, 중국의 원문 校點, 북한의 국역 작업 등이 수행

1) 동양의대 필사본과 이를 대본으로한 대만의 영인판.

2) 10,500부 인출.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 21.)

되었지만 체계적인 연구성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조차 몇몇 한국의학 통사나 서지류 서적에서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로 그치고 있고³⁾, 그나마 연구논문의 형식을 띤 글이라도 단편적인 소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에 들어 관본 및 인용서에 관한 개략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 또한 서지학적 의의만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아울러 養性門에 대한 연구⁴⁾가 발표된 바 있지만, 이 또한 중국 의서의 편제를 그대로 모방한 사전식 분류라는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학계에서는 그 중요성을 결코 낮춰 보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이미 취진판 복간을 전후로 다량의 의서가 채록되어 이용되었으며, 『醫方類聚採輯本』에 逸失된 고의서 30여종이 복원된 바 있다. 중국에서도 『의방유취』의 교점본 발행(1981년)을 계기로 이 서적을 자국에서 전해지지 않는 의서의 복원과 교감정리 작업에 주요 校本으로 이용하고 있다.⁵⁾

그러나 일본에서는 고증학의 입장에서 주로 인용서들을 발췌하여 복원작업만에 이용했을 뿐이었다. 중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의서의 교감작업에 사용하거나 교류사 측면에서만 논급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중국에서 간행된 교점본 『의방유취』는 원문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刪削, 변형시킨 부분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⁶⁾⁷⁾

따라서 국내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또 연구 방향도 중요하다. 이 서적을 단순히 중국 의서를 취합하여 놓은 중국의학백과전서라는 식의 기존 관념을 탈피하여 조선전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한국의학진통 가운데에 위치한 서적으로 자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먼저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본 사서와 서지 목록 및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의방유취』의 편찬과정과 이와 연계된 조선전기 관찬 의서의 간행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의방유취에 나타나는 편집체계와 서술방식 즉, 자료의 수집, 분류, 취사, 종합, 내용의 선후 배치 등을 권1, 2, 3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의방유취』의 체제와 인용방식을 분석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실전 의서의 복원결과를 요약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다소나마 『의방유취』의 특징과 讀法을 개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차후 병증 각론과 처방 용약의 연구에 지침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 소략한 고찰의 결과가 조선 3대 의서라고 부르는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東醫寶鑑』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학의 독자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⁸⁾

3) 金斗鐘, 金信根 등.

4) 姜世求. 「의방유취의 양성문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1996.

5) 盛增秀, 「從校點醫方類聚說起」, 上海中醫藥雜誌, 1984/6, pp. 34-35.

6) 위의 논문, p.35.

7)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醫方類聚』(校點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校點說明 참고.

8) 이하 본 내용은 '98년에 수행된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수정 보완된 것임을 밝힌다. 제4장 실전 의서의 복원은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4권1호에 게재된 논문의 주 내용을 골자로 발췌한 것이다.

1. 의방유취의 편찬과정

1.1. 世宗草稿本 醫方類聚

통상적으로 『의방유취』는 세종 임금에 의해 1445년 365권이라는 거질로 편찬된 동양의 학 백과전서라는 식의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의방유취에 대한 지식이 그다지 풍부하지 못하며 몇 가지 단편적인 기록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곧 놀라게 된다.

의방유취의 편찬 사실을 전해주는 최초의 기록이자 일반적인 인식의 범주를 한정짓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종실록의 기사이다.

* 세종27년(1445년) 10월 27일 :

集賢殿 副校理 金禮蒙, 著作郎 柳誠源, 司直 閔普和 등에게 명하여 여러 方書를 수집해서 門을 나누고 각 門에 해당하는 類를 모아 합해 한 책을 만들게 하고, 뒤에 또 집현전 直提學 金汶·辛碩祖, 副校理 李芮, 承文院 校理 金守溫에게 명하여 醫官 全循義·崔閔·金有智 등을 모아서 편집하게 하고, 安平大君 李瑬과 都承旨 李思哲, 右副承旨 李師純, 僉知中樞院事 盧仲禮로 하여금 監修하게 하여 3년에 걸쳐 완성하였으니, 무릇 365권이였다. 이름을 『醫方類聚』라고 하사하였다.⁹⁾

의외로 이 기록은 편찬의 시작이 아니라 완결을 알리는 종료시점의 기사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의방유취가 등장하는 실록의 기사는 이것이 시작이자 출발점이다. 이 기록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의문점을 드리우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간행목적이 없다. 완성시점에서 편찬기간 3년을 제하고 역산하면 늦어도 1443년에는 편찬에 착수했다는 말이 되는데, 85권에 달하는 적지 않은 분량의 향약집성방이 간행된 지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무엇 때문에 그것도 같은 임금의 재위기간 동안 연거푸 이같이 방대한 의서의 편찬을 서둘러야 했으며 완성 후에도 즉시 간행되지 못 했던 것일까?

9) 『世宗實錄』「第110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10.(“戊辰 …… 命集賢殿副校理金禮蒙·著作郎柳誠源·司直閔普和等哀集諸方, 分門類聚, 合爲一書. 後又命集賢殿直提學金汶·辛碩祖·副校理李芮·承文院校理金守溫, 聚醫官全循義·崔閔·金有智等編集之. 令安平大君瑬·都承旨李思哲·右副承旨李師純·僉知中樞院事盧仲禮監之, 歷三歲而成, 凡三百六十五卷, 賜名曰『醫方類聚』.”: 『世宗莊憲大王實錄』「卷110」, 77.)

* 文宗1년(1451년) 10월 9일 :

李季甸이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醫方類聚』와 『兵要』를 베껴 쓴 사람에게 모두 特旨로 散官의 직책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는 산관직을 제수하지 말라.” 하였다.¹⁰⁾

2번째로 등장하는 실록의 기사에서 유취가 정식 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아울러 만 6년이 흐른 시점이라는 사실과 세종의 등극 후 교정이 재개된 상황을 감안하면 역시 1445년 초판본이 완전하지 못 했으며 간행되지 못한 것이 분명해진다.

* 세종29년(1447) 7월 1일:

諺文廳 및 醫方撰集 書寫 別待衛 등이 書札에 공로가 있으므로 別도를 結코자 하나 의론이 같지 않아 다시 상의케 하다.

* 세종29년(1447) 9월 7일:

醫書撰集官에게 一資를 가할 것을 명하다. 副司正 임원준이 그 예에 있다. 都承旨 黃守身이 본래 원준과 친한지라 東班에 마음대로 옮겨 七品職을 주었으므로 司憲府가 그 일을 밝혀 義禁府에서 鞫問케 하다.

문종조 기사에 앞서 위의 두 기록은 세종 초판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정상의 문제와 함께 논공행상에 잡음이 있었던 것이다. 여하튼 세종 초판본은 집현전 학사와 의관, 문신들이 대거 참여, 다량의 의방서를 분문 유취하여 최대의 한의학서를 편찬하는데는 성공했으나 書寫와 교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우여곡절을 끝에 간행되지 못한 채로 수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冒頭에 제시된 의문점중의 하나, 즉 대형 방서의 편찬 목적에 대해서 이상의 명문화된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제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선 당시에 의학서적의 수요를 충족시킬 절대 필요량이 부족했으며, 교육 목적과 신진 의학설의 수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식정보의 수집, 정리가 최우선 과제였을 것이다. 이 문제는 계속되는 의방유취의 교정 작업과 편찬 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2. 世祖校正本 醫方類聚

10) 『文宗實錄』 「卷10」

세조의 의방유취 교정과 관련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보기로 하자. 다음 3가지 기사는 세조가 이미 세종 년간의 초판 과정을 상세히 지켜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정의 총책임자로 양성지가 인선되고 교정작업이 직접 지시된 세조5년 11월의 착수시점 이전에 이미 수 차례 간행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세조의 교정작업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梁誠之와 任元濬이었다. 전자는 서적편찬과 관련한 「書籍十事」(1466) 등 여러 차례의 奏議를 통해 관찬서의 간행과 收藏의 중요성을 피력했으며, 자신 또한 여러 가지 서적의 교정 및 편찬을 주도한 인물이다. 또 임원준은 의술로 등용되고 세조의 신임으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간 굴곡의 인물이었으며, 그 또한 세조가 친찬한 『醫藥論』을 주해하여 인쇄 반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세조4년(1458) 4월 6일 :

예조에서 아뢰기를, “세종대왕조에 찬술한 『醫方類抄』는 여러 가지 처방이 갖추어 실려 있지만, 그러나 卷秩이 너무 많아 갑자기 간행하기 어려우니, 우선 簡要한 方書を 가지고 分門講習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¹¹⁾

* 세조5년(1459) 9월 1일 :

御書로 左承旨 李克堧에게 유시하기를, “『治平要覽』과 『醫方類聚』는 모두 세종 때에 찬집한 책이므로 인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치평요람』은 다시 校閱해 보니 그릇된 곳이 많이 있지만, 『의방유취』는 반드시 이와 같이 그릇된 곳이 많지 않고 또한 日用에 간절한 것이 『치평요람』에 미칠 바가 아니므로, 나는 『의방유취』를 먼저 교정하여 인쇄하고, 『치평요람』은 천천히 다시 교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였다.¹²⁾

* 세조5년(1459) 9월 4일 :

左承旨 李克堧이 上書하기를, “신이 삼가 御書を 받들어 반복하여 생각해 보건대, 『醫方類聚』도 또한 醫書의 大畧이므로 日用에 緊切한 것은 진실로 『治平要覽』의 미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斤兩의 多少와 藥性의 寒溫에 있어서 만약 조금이라도 틀린 점이 있게 된다면 사람을 해침이 매우 클 것이니, 그것을 校正하는 일은 마땅히 갑절이나 힘을 써야만 하고 쉽사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정을 儒士가 할 필요는 없습니

11) 『世祖實錄』(3) 「第12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290.(“癸亥 禮曹啓: ‘世宗大王朝所撰『醫方類抄』, 備載諸方, 但卷秩浩穰, 卒難刊行, 姑將簡要方書, 分門講習.’, 從之.”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2」, 65.)

12) 『世祖實錄』(4) 「第17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346-347.(“九月庚辰 御書示左承旨李克堧曰: ‘治平要覽』, 『醫方類聚』皆世宗時撰集之書, 不可不印. 然『治平』更校之, 則誤處多, 若『類聚』則不必如是之多誤矣. 且切用非『治平』之所及, 予欲先校『類聚』印出, 『治平』則徐徐更校如何?.....’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7」, 75.)

다. 신이 보건대, 의서를 習讀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두 文理를 통달하여 方書를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 이런 무리들로 하여금 교정하도록 하고, 원컨대 通儒로서 醫方을 아는 사람 1명을 뽑아서 근일에 『兵要』를 교정하는 예와 같이 감독하고 거느리게 하여 서로가 檢察하도록 해서 상벌을 준다면 반드시 별도로 書局을 세우고 별도로 廩祿을 주어 먹도록 하지 않더라도 일은 쉽사리 성취될 것입니다.....” 하였다.¹³⁾

* 세조5년(1459) 11월 30일 :

行大護軍 梁誠之에게 명하여 『醫方類聚』를 校正하게 하였다.¹⁴⁾

위의 두 기록을 통해 세조의 교정작업이 의서 습독 과정을 통해 의학을 숙지한 의학습독관에 의해 주도되고 그 책임자로서 양성지가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세조10년(1464) 1월 11일 :

吏曹에 전지하여 孫昭 등 10인을 罷職시키고, 柳瑤 등 7인을 과직시킴과 동시에 前仕를 削除하고, 韓致良 등 46인의 전사를 삭제하고, 安克祥 등 11인은 告身을 빼앗았는데, 『의방유취』를 교정함에 있어서 많은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¹⁵⁾

사실 이 기록은 의방유취 편찬 과정에서 가장 파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무려 74인에 달하는 사람이 무더기로 징계된다. 이들의 실명이 모두 드러나지 않았으나 의서습독관과 의원 등의 교정실무자일 것이며 이 정도의 인원이면 교정자 대부분이 교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보다 앞서 서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교정착오와 관련 시사성 있는 기록이 있다.

* 세조9년(1463) 9월05일:

임금이 梁誠之에게 말하기를, “書冊을 상고하고 교정하는 일은 어찌 되었느냐?” 하니,

13) 『世祖實錄』(4) 「第17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347-348.

(“九月 …… 癸未 …… 左承旨李克堉上書曰: ‘臣伏承. 御書反覆尋思,……『醫方類聚』亦醫書之大全, 切於日要, 固非『治平』之所及也. 然以斤兩之多少; 藥性之寒溫, 若少有錯誤, 則害人甚大, 其校正之功, 當倍著力不可容易, 然其校正不必儒士. 臣觀醫書習讀諸人, 皆通曉文理, 熟知方書可令, 此輩校正. 乞選通儒知醫方者一人監領, 如近日『兵要』校正之例, 互相檢察施其賞罰, 則不必別立書局·別廩飲啖, 而功亦易就……’: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7」, 75.)

14) 『世祖實錄』(5) 「第18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38.(“戊申 …… 命行大護軍梁誠之之校正『醫方類聚』.”: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8」, 8.)

15) 『世祖實錄』(8) 「第32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98-99.(“甲子 …… 傳于吏曹, 孫昭等十人罷職, 柳瑤等七人罷職, 仍削前仕, 韓致良等四十六人削前仕, 安克祥等十一人奪告身, 以校正『醫方類聚』多致錯誤故也.”: 『世祖惠莊大王實錄』 「卷32」, 20-21.)

양성지가 말하기를, "이미 마쳤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조에 서적이 散亂하여 이제 비록 整齊하였더라도 이를 간직하여서 考閱에 갖추게 하라." 하였다.

* 세조10년 9월 8일 :

임금이 忠順堂에 나아가서 吏曹·兵曹를 불러서 注擬¹⁶⁾를 하도록 하여, 梁誠之를 吏曹判書로, 韓繼美를 西原君으로, 崔永潏을 行司憲 掌令으로 삼고, 『武經』을 註釋하고 『醫書類聚』를 編纂한 사람들은 모두 1資級을 올렸는데, 堂上官은 아들·사위·조카에게 대신 加資하였다.¹⁷⁾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의방유취의 완결이 아니었으며, 교정작업 완료 후에도 의서의 분류편집 작업이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상 3년이 지난 시점의 다음 두 기사를 보도록 하자.

* 세조12년 10월 02일 :

이날에 申叔舟·崔恒·姜希孟·梁誠之·丘從直·任元濬·成任·徐居正·李坡·李芮·金石梯·鄭沈 등에게 명하여 각기 郎廳 1인을 거느리고 諸書의 類聚를 揀選하도록 하였으니, 易·天文·地理·醫·卜筮·詩文·書法·律呂·農桑·畜牧·譯語·算法이다.

* 세조12년 10월 24일 :

申叔舟·崔恒·徐居正·姜希孟·任元濬·成任·梁誠之·李芮·李坡·金石梯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諸書의 類聚를 써서 바치도록 하고,.....

위의 두 기록은 시점이나 기사내용으로 보아 의방유취 교정작업과 연속된 것 같지 않다. 또 같은 달의 다음 기사에서 비슷한 내용의 명령이 거의 동일 인물에게 시달된 점 등으로 보아 같은 맥락에서 거듭된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 전기 의방유취 등 대형 방서의 편찬을 계기로 문신, 의관, 의서습독관 등이 의서습독 과정을 통해 선진 의학설을 도입, 정리하고 교육과 인재배양, 필수 의서의 편찬 등 다양한 의학사업이 추진되었고 의학외적인 제도정비와 맞물려 점차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형태로 정비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록의 관련 기사를 토대로 세조대 의방유취 교정 과정을 시기별로 대별해 보면 다음과

16) 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文官은 吏曹, 武官은 兵曹에서 후보자 3사람(三望)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

17) 『世祖實錄』(8) 「第34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334-335.("戊午 …… 御忠順堂召吏·兵曹, 令注擬以梁誠之爲吏曹判書, 韓繼美西原君, 崔永潏行司憲掌令, 註『武經』及撰『醫書類聚』人, 並加一資, 堂上官代加子·婿·弟·姪." : 『世祖惠莊大王實錄』「卷34」, 72.)

같이 구분할 수 있다.

5년 11월 - 9년 9월(1459-1463) : 1차 교정기.

9년 10월 - 10년 1월(1463-1464) : 纂註, 세조의 검토와 교정자 교체.

10년 1월 - 10년 9월(1464) : 2차 교정기. 세조의 재신임. 교정완료.

- 12년 10월 - : 諸書類聚(醫書類聚) 지속

5년의 기간이 교정에 소요되었으며, 이 시기의 교정작업은 주로 인용서간의 중복된 처방을 취합하여 축약시키는 과정이 주종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편찬시기로 보아 의방유취 세종 초판본을 모태로 재판된 것이 분명한 창진집과 교정을 거친 현존 성종본 간의 대조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체계상 재분류된 점을 감안하고 창진집 보다 추가된 내용은 주로 인용서 중에서 비교적 후대 의서의 대조 결과를 취합하여 주석 처리한 부분들이다.

자세한 정황은 다음 장에 이어지는 창진집 편찬에 관한 논의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1.3 成宗本(初刊本) 醫方類聚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세조 교정작업의 완료 후에도 다양한 의서의 類抄작업은 의서 습득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역시 간행 완료시점인 1477년의 기사에서 3년의 印行기간을 빼더라도 10여 년의 시간에 공백이 생긴다. 물론 곧 바로 간행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상정해 볼 수 있겠으나 사소한 궁금증을 접어둔다면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그 사이의 얼마나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비록 방대한 분량이긴 하나 크게 보아 1차 편찬에 3년, 2차에 걸친 교정에 5년, 간행에 3년이 소요되었으므로 시간상으로는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특히 의방유취를 모태로 조선 의서가 편찬되고 諸書類抄가 지속된 걸로 보아 일정 부분 새로운 내용의 추가나 간행을 위한 마무리 교정이 다시 이루어졌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된다.

의방유취 교정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 부었던 세조 당대에는 간행되지 못하였고 세조 원년에 왕명으로 개주한 율해활자로 손자인 성종 임금에 의해 인출된다. 세종25년(1443)의 편찬 시작 시점으로부터 성종8년(1477) 초간본이 인출되는 시점까지 총 소요기간 5대 34년에 걸친 대역사를 마무리짓게 되었던 것이다

* 성종8년(1477) 5월 20일 :

西平君 韓繼禧, 左參贊 任元濬, 行護軍 權攢이 『醫書類聚』 30帙을 印行하여 올리고 아뢰기를, “이 책을 찍어내는 데 3년이 걸려서 공정이 끝났는데, 監印官 柳湑는 오래 醫官으로 滯留되었고, 白受禧는 典校署 別提로 이미 考滿이 되었으니, 청컨대, 유서는 좋은 벼슬을 제수하고, 백수희는 祿과 관직을 주소서.” 18)

위의 기사에서 발행 부수는 30질로 명시되어 있지만 총 권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당시 활자판의 인쇄 기술상 1회에 그 이상의 부수를 인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본학자들의 견해이며, 총 권수는 이미 세조대 교정과정에서 266권으로 축약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간행시점의 포상결과로 보아 교정의 주역들과는 상당한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리 전개를 바탕으로 의방유취는 크게 보아 3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판본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방유취의 편찬과 관련한 왕조실록의 기사 검토를 통해 개략적인 의방유취 편찬과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 의방유취 편찬 과정 개요

조대	기간	주요 편찬인물	경과	비고
세종	1443	金禮蒙, 柳誠源 閔普和 등(集賢殿學士)	世宗命撰 '哀集諸方, 分門類聚'	1차 草稿本
	-	金汶, 辛碩祖, 李芮, 金守溫(文官) 全循義, 崔閔, 金有智(醫官)	편집	
	1445	安平大君 瑑, 李思哲, 李師純, 盧仲禮(監修)	365권 완성, 世宗賜名	
	1445 -1451	?(集賢殿, 承文院, 內醫院)	書寫, 文宗 散官職 除授 취소	
세조	1459	梁誠之에게 校正을 명,	5년11월-9년9월: 1차교정기	2차 校正本 (세조10년 : 醫書類聚)
	-	孫昭, 柳瑤, 韓致良, 安克祥 등 파직	9년10월-10년1월: 세조의 검토와 교정자 교체.	
	1464	韓繼美, 崔永潁 등 교정 완료 포상	10년 1월 - 10년 9월: 2차 교정기. 세조의 재신임.	
성종	1475	醫書習讀官	12년 10월 - : 제서유취	3차 初刊本
	- 1477	韓繼禧, 任元濬, 權攢 柳湑, 白受禧(監印官)	30질(266권 264책)을 乙亥活字로 간행	

18) 『성종실록』(10) 「第80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1: 273-274. (“丙戌 …… 西平君韓繼禧·左參贊任元濬·行護軍權攢印進『醫書類聚』三十帙啓曰: ‘此書印出至三年功訖, 其監印官柳湑久滯醫官, 白受禧以典校署別提已考滿, 請授湑顯官, 受禧祿職.’……” : 『成宗大王實錄』 「卷80」, 61.)

2. 전문의서의 출판

2.1 세종의 의방유취 편찬과 구급의서 간행

세종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의서가 출판된 기록은 보이나 의방유취와 연계하여 편찬된 서적은 현재 확실한 실물이 전해지지 않아 자세히 논급하기에는 곤란하다. 다만 구급방과 창진집의 간행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예컨대 구급방 만해도 세종대 구급방, 세조구급방, 허준의 언해구급방 등의 간행사실이 전해지는데, 여러 가지 異本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널리 보급된 한글학회 영인 蓬左文庫본은 한글표기나 편찬방식, 활자모양 등을 감안할 때 세조대 편찬된 것이 확실하다.

후대 허준의 언해본과는 차서나 인용서 등 여러 면에서 계열성이 다르며, 아마도 세종대 구급방은 향약집성방의 편찬을 전후로 간행되었을 것이며, 한글학회본 역시 창진집과 마찬가지로 의방유취 초편 이후 늦어도 세조대 교정시기에 재판된 것으로 보인다.

실록에 세조12년 6월 救急方 각 2건을 팔도에 인반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 시기는 간행 이전 교정기에 해당한다. 또 현전 구급방을 살펴보면 의방유취의 내용을 골자로 발췌하고 향약집성방, 향약구급방, 향약방 등 조선의 고유 향약의서가 골고루 채록된 점을 쉽사리 알아챌 수 있다. 또 36조의 분류체계가 향약집성방과는 사뭇 다르고 인용내용도 많은 차이가 있어 향약집성방을 모태로 편집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放事撮要』에도 世祖命撰에 淸州, 平壤板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언해본 구급방은 세조 12년경 醫書類抄 작업의 소산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의방유취 편찬 이후의 성과가 담긴 것으로 보아 세종대의 구급방은 초편 이전의 것으로 언해본이 없었을 것으로 가능성이 많다.

2.2 세조의 의방유취 교정과 의서 편찬

의방유취의 편찬과 가장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창진집이다. 이 책은 그간 실물이 전하지 않고 기록만 남아있었으나 근래 중국 절강성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¹⁹⁾

* 瘡疹集 3권

任元濬, 李克堪 刪定. 세조3년(1457)²⁰⁾

19) 허의도, 「535년전 퍼낸 국내 첫 피부병책 ‘창진집’ 중국에 있다」. 중앙일보:1997.10.15일자 보도기사.

20) 瘡疹集의 간행시기에 있어서 三木榮의 세조6년(1460) 무렵이라는 추정을 따른 적이 있으나 이제 실물의 발견에 따라 서문에 의거 1457년으로 정정함.

【瘡疹集序】

.....世宗太王.....命內醫搜撫諸方，凡屬瘡疹者，合爲一帙，名曰瘡疹集，印頒中外，顧其書，猶頗闕誤。我 殿下特留宸慮，清讌之間，取閱此書，而病其未備，遂 命 臣元濬，及史曹參議 臣 李 克堪，俾之刪定，遇有難會，略爲附註。始自發出，至于滅癩，凡爲劑有九，爲卷三，方論藥證，無不具載，而其規模節目悉稟。睿裁又 命僉知中樞 臣 李 禮孫，就加讎校，書成 命 臣 序之.....

위의 서문에 의해 이미 세종대에 창진집의 모본이 있었으며, 세조3년(1457년) 왕명으로 임원준과 이극감(刪定), 이에손(讎校) 등이 재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편 내용은 刪定, 註釋, 그리고 3권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창진을 크게 9제로 구분하여 論證施治를 서술한 것이다. 재편된 창진집 3권은 상, 중, 하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의방유취와의 비교 결과 소아진두문의 내용과 대비된다. 좀 더 세분하여 대비하면 의방유취 권263의 疹痘1에서부터 권264 疹痘2의 전반부 성혜방으로부터 처방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논설부가 창진집 권상의 「諸家論」과 대동소이하다. 이하 권265의 疹痘3 疹痘禁忌까지의 처방 내용이 창진집에서는 권중과 권하의 9가지 치료단계별로 분류되어 재편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향약집성방내 창진은 권69중 小兒疹痘瘡, 小兒斑瘡, 小兒疹痘瘡滅癩 셋 뿐으로 항목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소략하다. 창진집의 서문에 세종대의 창진집이 오류와 미비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종대의 초편 창진집은 이에 비해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추론은 향약집성방→세종대 창진집, 의방유취→세조대 재편 창진집의 등식 아래 가능하다. 나아가서 이러한 구도 아래 의방유취 초편본과 창진집, 교정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창진집이 시기적으로 초편본을 분류, 재해석하여 교정과 주석작업을 거친 것은 확실하나 최소한 소아진두문 즉, 창진에 대한 부분만큼은 특별히 추가된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인다. 곧, 세조대의 교정작업이 단순히 글자 교정이상이 아니라면 몰라도 특별히 달라질 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100여권의 분량이 산삭되었을까? 세조대 5년여에 걸친 교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향약집성방과의 중복부나 인용서간의 중복된 내용을 지칭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 醫藥論 殘存.

世祖親撰，任元濬 註解. 세조9년(1463)

* 세조9년(1463) 12월 27일 :

임금이 『醫藥論』을 지어서 韓繼禧·盧思愼과 兒宗 등에게 보이고, 任元濬에게 명하여 註解를 내어서 인쇄 頒布하게 하였다. 그 논에 이르기를, “무릇 병을 치료하고, 약을 사용하여 길흉을 바꾸고, 조화를 부리고,禍福을 정하는 것은 다만 그 차고 더운 것을 分

辨하여 처방 치료하는 데 있을 따름이요, 그 盛하고 衰함을 틈타서 일찍 도모하는 데 있을 따름이니, 8種의 醫員도 그것을 엿보지는 못할 것이다.....무엇을 8종의 醫員이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가 心醫요, 둘째가 食醫요, 셋째가 藥醫요, 넷째가 昏醫요, 다섯째가 狂醫요, 여섯째가 妄醫요, 일곱째가 詐醫요, 여덟째가 殺醫이다.....또 무심한 의원이 있으니, 마음은 생이 되나 근본은 생이 없는 것이다. 생이 없다면 병도 없을 것이요, 병이 없다면 의술도 없을 것이요, 의술이 없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다.²¹⁾²²⁾

세조가 친찬한 이 의약론은 의방유취와 직접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으나 시기적으로 교정의 막바지에 해당한다. 특히 세조10년1월 대규모 교정진 문책인사 직전이어서 세조가 당시 조선의 의료현실에 자못 회의적인 심경이었음이 짐작된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이 일부 내용 외에는 실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상고할 길이 없다.

2.3. 성종의 의방유취 간행과 2차 의서 편찬

성종대의 의서 출판은 許琮에 의해 주도된다. 성종의 당대에 의방유취가 초간되었지만 곧이어 인출의 부적합을 이유로 역시 새로운 의서의 편찬이 속출하게 된다. 먼저 성종20년(1489)에 구급방을 보완한 『救急簡易方』 8권이 편찬된다. 이것은 역시 의방유취 성종본을 토대로 한 응급질환 전문의서의 확충과정으로 보인다.

* 救急簡易方

尹壕, 任元濬, 朴安性, 權健, 許琮 찬. 성종20년(1489), 8권

【救急簡易方序】

.....醫方類聚, 既集醫家之大成, 其刪煩舉要者, 則先有曰鄉藥濟生方, 曰救急方, 而或取舍未精, 詳略失當, 皆不適於中.....命領敦寧府事 臣 尹壕, 西河君 臣 任元濬, 工曹參判 臣 朴安性, 漢城府左尹 臣 權健, 暨 臣 琮, 率其僚屬, 搜括古方, 病取其要, 而以急爲先, 藥收其寡, 而以易爲務, 其所裁定實稟, 神規擇之, 必精簡而不略, 又翻以方言, 使人易曉, 書成, 凡爲卷八, 爲門一百二十七, 命曰救急簡易方, 仍令 臣 序之.....

21) 世宗實錄 卷31. p.598.

22) 증보판 CD-ROM 국역조선왕조실록 1997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이어 의방유취 초간본을 다시 5/1로 축약한 醫門精要가 편찬된다. 의문정요 역시 전해지지 않아 그 규모와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서문을 통해 살펴보면, 대폭적으로 분량을 축소시켜 인쇄의 용이함과 열람의 편이성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특별히 내용의 축약에도 불구하고 91문의 의방유취에 비하여 87문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의방유취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 원서의 규모를 전해주는 유일한 기록으로 申用漑의 二樂亭集에 실려 있는 醫門精要의 跋文을 통해 그 개략을 알아보기로 하자.²³⁾

* 醫門精要

許琮 찬, 權健, 金諶 교정.

성종24년(1493-) 편찬, 연산군10년(1504) 간행, 50권

【醫門精要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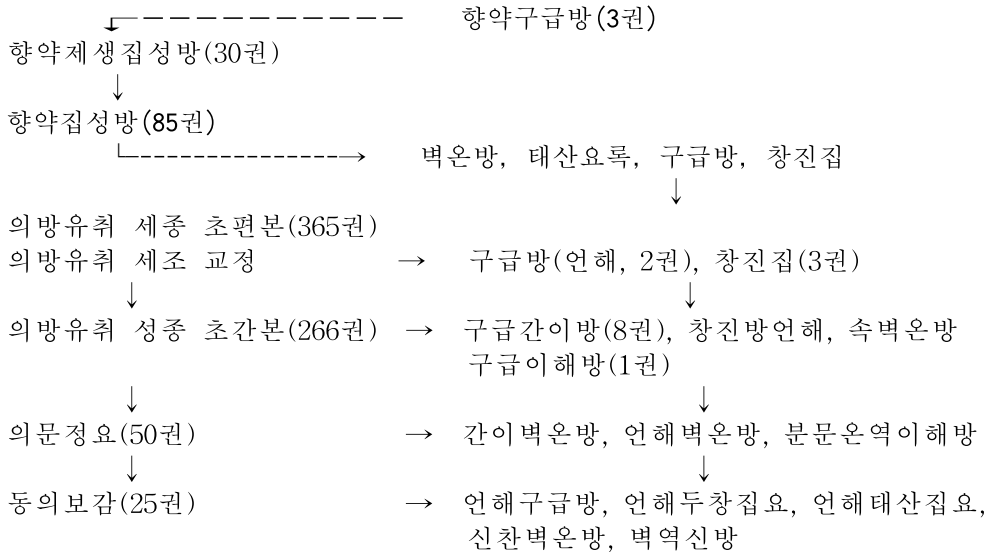
『의문정요』는 원래 『의방유취』를 간략하게 편찬한 것이다. 의방유취는 266권으로 세종대왕께서 찬집을 시작하신 후 세조를 거쳐 성종 임금대에 와서 완성된 것이다. 이 책은 수많은 의서를 수집하고 각 분야별로 해당하는 이론과 다양한 治證, 처방을 갖추어 집대성한 것으로서 실로 의가의 指南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권수는 너무 많고 인출한 부수가 많지 않아 세상에서 보기 드문 책이 되었으며, 의원들조차도 훤히 알기 힘든 것이 흠이다.....이에 弘治6년 癸丑(1493, 성종24년)에 內醫院 都提調 許琮에게 번잡한 내용을 없애고 간략하게 요점을 추스려 인쇄하기 용이하고 의술을 익히기에도 편리한 책으로 꾸미라고 명하였다. 더하고 뺄 것과 간략하고 번잡한 것을 親裁하시고 나서 『醫門精要』라는 서명을 하사하셨다.

편집이 다 끝나기 전에 허종이 사망하니 다시 병조참판 권건과 이조참의 김심에게 명하여 자세히 교정을 보도록 하였으나 미처 일이 완성되기 전에 성종이 승하하시어 몇 년째 교정이 중단되었다. 주상 전하(燕山君)께서 부왕의 遺志를 받들어 내의원에서 교정을 하도록 명하고 50권으로 묶어 87문으로 나누게 하시는 한편 나(신용개)에게 발문을 짓도록 명하셨다.....²⁴⁾

23) 金然의 『海東文獻總錄』에도 의문정요가 수록되어 있으나 이 발문의 내용을 초록한 것이다.

24) 右醫門精要者, 原醫方類聚, 而刪繁就簡者也. 類聚書凡二百六十六卷, 我 世宗大王, 始開纂輯, 歷 世祖 成宗數聖而書成. 備集羣方, 該論衆證, 實醫家之鉅海指南也. 然帙多印少, 中外罕覩, 爲醫者亦病於貫穿. 我 成宗大王, 奉養 兩殿, 誠孝天至. 凡所以壽而康之者, 無所不用其極, 醫方藥經, 徧覽深惟, 仁民濟世之念, 遂及於織退. 慮類聚之浩穢, 思所以約而要之, 庶醫者易慣其術, 而人得以徧覩也. 乃於弘治六年之癸丑, 命內醫院都提調臣許琮, 芟其繁而精要之, 令簡而易印, 約而易習. 其增削簡繁, 摠自 睿裁. 賜方名醫門精要. 編才訖而琮逝, 更 命兵曹參判臣權健, 吏曹參議臣金諶. 詳加讎校, 未底于成, 而 成宗陟遐, 停校有年. 我主

의방유취의 편찬을 전후로 기록에 전하는 조선 전기 의서의 간행을 종합의서와 전문의서로 나누어 시기별로 대비하고 편찬과 관련한 영향성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이 연쇄적인 확충구조로 표시할 수 있다.



이상 조선 전기의서 출판 과정을 개략하면 종합의서의 간행을 전후로 구급, 胎産 등의 응급의학서와 瘟疫, 瘡疹 등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전문서가 편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해 조선전기 의학은 전래 고유경험의학의 수합-중국 신의학의 융합-체계적인 흡수 분류과정을 통해 2차적으로 일반인의 실용에 우선되는 응급의학 및 방역전문서가 발췌 출판되었던 것이다.

上殿下, 遙追 先志, 遂命內醫院, 校定其編爲五十卷, 分門爲八十有七, 仍命臣用漑爲跋.....
(申用漑, 『二樂亭集』 권8, 「醫門精要跋」)

그림 1 : 의방유취 조선판본의 전승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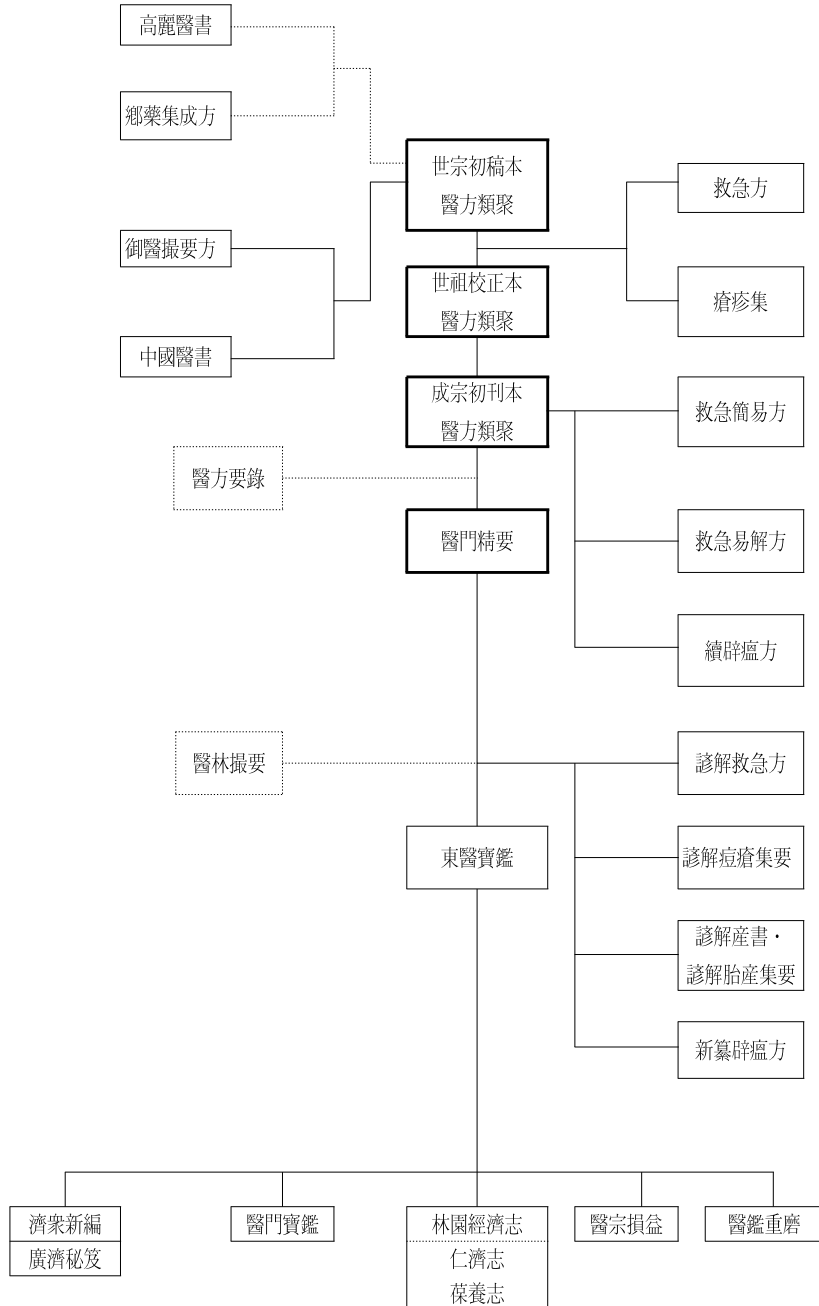


표 2 : 의방유취 조선판본과 이를 토대로 한 2차의서의 출판

版本/2次醫書	編纂/刊行時期	主要 編纂人物	編制	書誌事項	典據
1. 世宗草稿本 醫方類聚	1443-1445	金禮蒙, 全循義, 盧重禮 等	365卷	?草稿本 世宗 醫方類聚 賜名	失傳, 世宗實錄 卷110.
救急方	世宗年間 (1419-1450)	?	?	木版 1冊(零本)	서울大 奎章閣 所藏
瘡疹集	世宗年間 (1441-1450)	?	?	瘡疹方	失傳, 瘡疹集 序 文
辟瘟方	世宗年間	?	?	?	失傳, 中宗實錄
2. 世祖校正本 醫方類聚	世祖5年(1459) -世祖10年(1464)	梁誠之, 李克堪, 任元濬 等	266卷264冊 92門	?校正本 醫方類抄, 醫書類聚	失傳, 世祖實錄卷 12,17,18,31,32,34
瘡疹集	世祖6年(1460)	任元濬, 李克堪 刪定	3卷	附: 本朝經驗	失傳→最近 發見
醫藥論	世祖9年(1463)	世祖 親撰 任元濬 出註印頒	?	?	世祖實錄 卷31 殘 存
救急方(診解)	世祖年間 (世祖12年頃 推定)	?(醫書習讀官)	上下2卷2冊	乙亥字 混用, 木板 本	日本 名古屋 蓬左 文庫 所藏
3. 成宗初刊本 醫方類聚	1474-1476彫成 成宗8年(1477)印出	韓繼禧, 任元濬, 權 攢 等	266卷264冊 92門	乙亥字 推定 醫書類聚	日本 宮內廳 書陵 部 圖書寮 所藏
救急簡易方	成宗20年(1489)	尹塚, 任元濬, 許琮, 朴安性, 權健 等	8卷127門(許 琮 序) 9卷9冊	新纂救急簡易方, 救急簡易方診解	殘存
救急易解方	燕山君4年(1498) 1499年 印出	尹弼商, 洪貴達, 金 興壽, 鄭眉壽 等	1卷1冊	燕山君 救急易解方 賜名, 洪貴達 序, 權 健 跋 等	現存
續辟瘟方	中宗20年(1525)	?	1冊?	簡易辟瘟方?	失傳, 中宗實錄, 卷 32, 52
4. 醫門精要	成宗24年-(1493-)	許琮(1次編輯後 1494 死亡)	50卷87門	? 成宗 醫門精要 賜 名	失傳
	燕山君10年(1504) 刊行	權健, 金諶 內醫院(校正)	?50卷87門	許琮 跋文	二樂亭集 卷8 肅 宗8年(1682), 海東文獻總錄

3. 총론의 체제와 인용방식 분석

3.1 총론의 체제

1) 구성상의 체제 - 4단 구성

『의방유취』는 전체적으로 91문²⁵⁾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문은 또 理論·方藥·食治·禁忌·鍼灸·導引 등의 내용순서로 수록되어 있다.²⁶⁾ 그러나 이론과 방약 이외의 食治·禁忌·鍼灸·導引 등의 내용은 매 문마다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며, 전체 내용중의 해당 부분도 적은 양이다.²⁷⁾ 이상 4가지를 치료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방약에 포함시킬 경우, 이론 및 방약을 비롯한 제반 처치에 관한 내용이 2:8 정도의 비율로 수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론 부분중 『의방유취』 전체 내용의 의학사상과 방약 이론이 집중된 총론부 3권은 각론에 해당하는 매 병증 각과를 준례로 하여 살필 수 없으며, 많은 양에 내용별 세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견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물론 이 점은 인용방식의 서명을 문마다 대체목으로 하고 원서의 인용제목을 중제목으로 삼은 각증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각과 병증문은 비교적 세분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성종본 원문에서는 각 인용서명을 매행 상단 괄선에 붙여 적고, 이하 중제목에 해당하는 편명은 한 칸 내려쓰거나 인용서명 아래 붙여 썼으며, 각 논설의 소제목은 두 칸 내려 적고 있다.²⁸⁾

『의방유취』의 체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인용서의 편명이나 소제목으로 거명된 것들 먼저 검색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²⁹⁾ 저자는 『의방유취』의 편명과 소제목을 검색하는 과

25) 총문수에 관해서는 집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金斗鐘, 三木榮 등은 91문으로 崔秀漢은 95 문(朝鮮醫籍通考, p20)으로, 최환수는 91(92)문으로 집계하였다.

26) 凡例 “一. 諸門內論及藥畢書後, 繼書食治·禁忌·導引.” 이와 같은 순서의 구성에 관해서 金斗鐘, 三木榮, 崔秀漢, 金信根 등은 모두 범례만 소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7) 인용횟수 조사에서 도합 10% 미만으로 집계됨. (최환수, 의방유취 인용서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약연구원 논문집, 미발간, p. 20.)

28) 이러한 표기 방식은 성종본이나 취진판의 필사본에서 모두 동일하게 준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점본에서는 분책별 세부 목차를 작성하면서 三因方의 서명을 누락시켜 太醫習業이하 6편의 논설이 簡要濟衆方으로 편차되었고, 直指方의 편명인 證治提綱을 인용서명으로 검출하여 혼재되어 있다.

29) 성종본 『醫方類聚』 원본에는 卷之一 「凡例」에 이어 각 권을 문별로 구분한 「總目」만 수재되어 있다.

정에서 『의방유취』의 총론이 구성상 大門, 引用書, 引用篇, 諸論의 4단 구성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방유취』 편집시의 중심사상과 기초이론, 방약 원리 등이 집중 거론된 총론부의 체제를 4단으로 분류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 총론의 구성체계에 따른 제론의 인용서와 판본대조례

수록순	인용서명	증편명(편제)	논제	인용문	교감 및 판본대조
010801	直指方	(卷之一, 總論1)	諸陰諸陽論		
010802			問病論	難經, 東坡先生	
010803			論易簡方		
010804		證治提綱	得病有因		
010805			治病當先救急		
010806			治病如操舟		
010807			用藥中病不必盡劑		
010808			經常用藥自有奇功		
010809			論肝脾主病	經曰	
010810			病人尺脈洪大		
010811			水氣腎氣血氣風毒擒 縱治法		
010812			退熱		
010813			柴胡退熱不及黃芩		
010814			退熱有法		
010815			滯血發熱		
010816			下後大腸熱腫墜重		
010817			肚皮痛		
010818			胸堂氣隔	活人書	
010901	朱氏集驗方		煮膠法	梁國佐傳(전문)	
010902			丸藥法		
011001	儒門事親		七方十劑繩墨訂	易, 內經(經說)10, 周禮, 王太僕5, 仲景語云2, 內經2, 古人云, 啓女子	
011002			服藥一差轉成他病說	圖經2	
011003			偶有所遇厥疾獲瘳記		
011004			水解		
011101	雜記九門	臨變不惑 (卷之二, 總論2)	涌法		*성종본 낙장, 취진 판보식
011102			涌嗽		*성종본 낙장
011103		當禁不禁	病愈後犯禁而死		*성종본 낙장
011104		高技常孤			*성종본 낙장
011105		群言難正	謗吐		*성종본 낙장
011106			謗三法	內經(岐伯)	*성종본 낙장
011107			謗峻藥	內經	*성종본 낙장
011108		病人負德愈後吝財			*성종본 낙장
011109		同類妬才	群口誣戴人		*성종본 낙장
011109			難素撮要究治識病用藥之圖		*인용서도해
011110			六門病症藥方之圖		*원도해, 교점문자
011111			內經濕變五泄		*원도해, 교점문자
011112			金匱十全之圖	內經	*원도해, 교점문자
011201	治病百法		扁鵲華佗察聲色定死生訣要		

수록순	인용서명	중편명(편제)	논제	인용문	교감
011616		藥類法象 (卷之三, 總論3)	咬咀藥類	仲景, 孫真人	東垣試效方(試效方)15, *一~三낙장
011617			升降者天地之氣交	經云4	
011618			藥性要旨		
011619			藏氣法時補瀉法		
011620			治法綱要	氣交變論,	
011621			抑學辨		
011622			用藥用方辨		
011623			藥味專精	內經, 成無己	
011624			病有遠近治有緩急	仲景, 內經(經云)5, 靈樞	
011625			陽證治驗	內經(經云)3	
011626			用熱遠熱從乎中治	內經2	
011627			病宜早治	傷寒論, 內經, 金匱玉函	
011701	澹寮方	醫功報應門	醫以救人爲心		
011702			許學士		
011703			攝醫善士		*校點本文刪
011704			醫不貪色		*校點本文刪
011705			用詭道以劫流俗		
011706			段承務		
011707			下胎果報		*校點本文刪
011801	拔粹方		本草十劑	鍼經(經云)2, 素問, 內經, 仲景3, 潔古2, 孫真人	
011802			百病在氣在血		
011803			治病必須求責		
011901	王氏集驗方				(治風例話)
011902			雪樓程學士贈序		
012001	永類鈴方		靈寶度人經法		*校點本文刪
012101	經驗良方				(用藥要訣 10조)
012201	烟霞聖效方	神農藥食反誤方	六陳		
012202			十八反		
012203			藥食相反		
012204			諸物誤殺人方		
012205			飲食相反方		

2) 내용상의 흐름 - 4단계 복합구조

총론의 체계는 제1권 첫머리에 배치한 千金方³⁰⁾의 인용 부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방유취』 총론부의 서술방식은 ‘立論-治法-處方-用藥’이라는 기승전결식의 4단계 구조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시기선후에 따라 뒤이은 인용서에서 같은 범주의 내용을 확충하여 다룸으로써 다단계의 복합적인 서술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결국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인용서별 총론구성과 함께 유취 총론3권 전체의 맥락을 대법-부연-각론-임증례 식으로 구성한 이중복합 서술방식을 택한 셈이다. 이는 물론 목록상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1, 2, 3권을 차례로 읽는 독자라면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하면서 기초지식의 심도를 확충하고 자연스럽게 시대적인 흐름이나 의학이론의 발전과정을 체득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권1의 千金方 인용내용의 주제를 요약해 보면, 1)論大醫習業 : 의사의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 2)論大醫精誠 : 의사로서의 윤리 도덕, 3)論治病略例 : 치법대요, 4)論診候 : 진단법 대강, 5)論處方 : 처방방법, 6)論用藥 : 약물학, 7)論合和 : 복합처방 및 전약법, 8)論服餌 : 복약금기와 식이, 9)論藥藏 : 약물의 저장과 관리 등의 내용을 논하고 있다. 이상 9편의 주제를 크게 묶으면 論大醫習業, 論大醫精誠은 입론, 論治病略例, 論診候는 치법, 論處方, 論合和편은 처방, 論用藥, 論服餌, 論藥藏 3편은 용약에 해당한다.³¹⁾

위의 천금방 내용을 기준으로 뒤이은 인용서에서 주제가 유사한 내용이 거듭 부연, 확충되어 반복되는데 1. 論大醫習業, 論大醫精誠 2편의 입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聖惠方에서 叙爲醫, 三因方の 太醫習業으로 비슷한 논조의 글이 거듭되다가 권2, 3의 雜記九門(高技常孤, 群言難正 등 편)과 澹寮方(醫功報應門)에서는 좀 더 비근한 주변의 예화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다단계 구성을 통하여 우리는 마치 학설사를 읽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앞서 거례한 것 중 千金方の 論大醫習業, 聖惠方の 叙爲醫, 三因方の 太醫習業을 놓고 비교해 보아도 각자 시대적 특성, 필독 의서의 변천, 의학사상의 변모 등을 짐작할 수 있으며 뒤에 이어지는 醫德의 실천적 실례를 통하여 의사 본연의 소명과 현실적용 문제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치법에 있어서는 論治病略例에서 자연법칙과 인체생리의 대법을 논하고 이어 論診候에서 진단법의 개요를 설명했다고 할 수 있다. 성혜방의 論形氣盛衰法, 論女子盛衰, 論丈夫盛衰 3편을 인용하여 구체적인 인체 생리를 논하고, 삼인방의 藏府配天地論을 인용하여 오운육기와 장부의 배합을, 簡易方の 男女動靜說을 인용하여 남녀의 생리차이, 直指方の 諸陰諸陽論, 得病有因, 治病當先救急, 治病如操舟 등편을 인용하여 병인, 표본, 치법 등이

30) 이하 의방유취내 인용서로서의 서명과 인용편명은 부호를 생략함.

31) 千金方の 계제순과 달리 聖惠方 논설부에서는 處方, 合和, 用藥, 服餌의 순으로, 和劑局方에서는 處方, 合和, 服餌, 用藥 수록하고 있어 점차 이론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논급된다. 권2로 넘어가면서 雜記九門의 汗吐下 3법과 오운육기설이 구체화되고 東垣試效方에서는 표본음양에 대한 병리론이 전개된다. 이어 得效方에서 3편의 集說을 통해 치법의 대강을 정리³²⁾하고 3권에서는 衛生寶鑑의 治法綱要, 抑舉辨, 拔粹方의 百病在氣在血, 治病必須求責 등 제가론이 소개되고 壽親養老書와 壽域神方을 통해 노인의 생리병리 및 구체적인 진단법의 세부설명을 통해 다양한 치료법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셋째, 처방에 있어서는 論處方, 論合和 2편을 통해 처방과 약물배합의 기본원칙만을 제시하고 이하 개별적인 언급은 모두 삭제했는데 이는 곧 유취 편찬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藥對曰.....’ 이하 전문의 2/3에 달하는 개별 약물의 용례에 관한 22행의 구체적인 논술부분을 삭제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아예 첫머리의 논설만 수록하고 ‘例曰.....’이하 약물별 구체적인 용법, 도량형, 약물 가공법등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모두 삭제시킴으로써 논제에 맞는 내용만을 엄선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겠지만, 일단 이미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논제에 따라 논설의 내용을 취사했거나, 또는 뒤이은 인용서와 내용상 중복을 피한 것이 눈에 띈다. 이 경우 삭제한 부분은 뒤이은 和劑局方의 論服藥食忌와 論炮炙三品藥石類例에서 상론하고 있으며 기타 내용도 후대 인용서에서 훨씬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

넷째, 용약에 관한 논설은 사실 『의방유취』의 주 관심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³³⁾, 먼저 千金方의 論用藥, 論服餌, 論藥藏 3편은 약물학과 이의 운용과 관리, 섭생, 식이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해당한다. 다만 藥藏篇은 孫思邈의 직접저술이 아니고 후에 추가된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8편의 글에 비하여 비중이 좀 떨어지고 협소한 주제로 보인다. 이는 뒤이은 聖惠方이 거의 같은 제목의 4편을 수록한 반면 약장편에 해당하는 논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타서에 비해 이른 시기의 언급을 인용코저 채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후대의 약물의 辨僞, 修合法, 採取 등 다양한 논설의 준거로서 전범을 제시하고자 필요했음을 추리해 본다. 그러나 권3 壽親養老書의 貯藥, 爛閱 등의 논설을 실은 것은 역시 약물의 실제 운용이나 관리적 측면을 중요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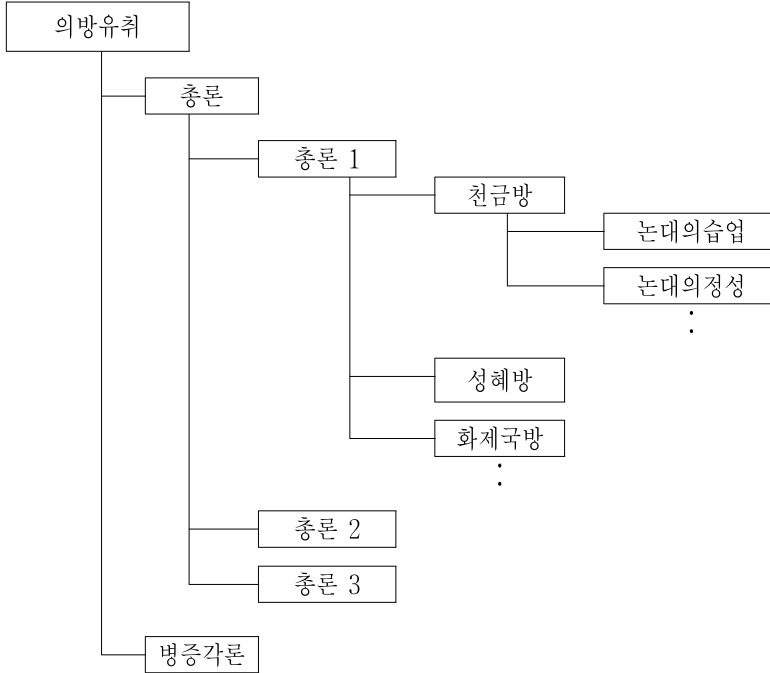
총론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진진시키면 『의방유취』 총론부 편제시의 기준은 입론에 있어서는 선대의 논설을 중시하여 먼저 제시하고 제가의 입증례나 세부 약물등의 상론에 있어서는 당시 입장에서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구체적인 활용례와 신지식을 위주로 편제되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32)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전 『世醫得效方』의 卷一 「大方脈雜醫科」에는 「集脈說」을 필두로 유취에서 인용한 3편(集病說, 集證說, 集治說)이 연계되어 있는데 첫편만은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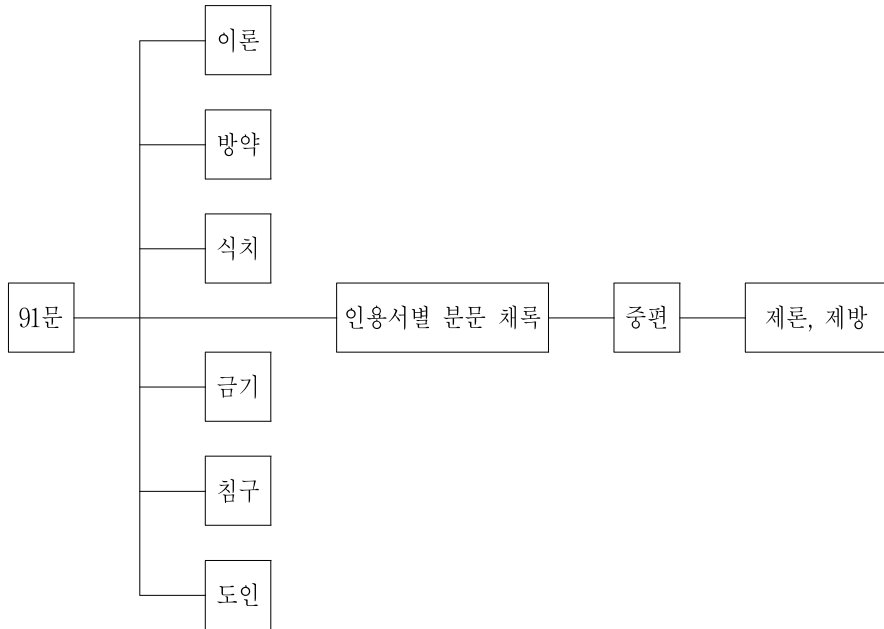
33) 의방유취가 처방서로 편찬된 점과 실제 내용상의 비중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림 2 : 의방유취의 편집체계 구성도

가. 외형상의 편제



나. 문별 내용의 편제



3.2 인용제서와 범례

편찬체계를 파악하는데 범례에 제시된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대량의 인용서가 어떤 원칙으로 안배되었는가 하는 문제 또한 제반 고증의 요건이 된다.

『凡例』의 편집 원칙 첫 항에는 “諸方以世代先後，分門編入，不分細目.”(모든 처방은 世代에 따라 나열하여 門을 나누어 엮어 집어 넣고 細目은 나누지 않았다)라고 제시하였고 총론에 인용된 실제 인용서는 다음과 같다.

- 卷1: 千金方, 聖惠方, 和劑局方, 簡要濟衆方, 三因方, 瑣碎錄, 簡易方, 直指方, 儒門事親
 卷2: 雜記九門, 治病百法, 十形三療, 東垣試效方, 得效方, 衛生寶鑑(1)
 卷3: 衛生寶鑑(2), 澹寮方, 拔粹方, 王氏集驗方, 永類鈴方, 經驗良方, 烟霞聖效方, 壽親養老書, 施圓端效方, 事林廣記, 壽域神方, 衛生易簡方, 備預百要方

이를 引用諸書의 배열순서에 대입시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³⁴⁾

황제내경소문-영추-운기-유편-명당구경-침경-침구경-난경-난경본의-상한론-상한론주해-오장론-금궤방-왕숙화맥결-왕씨맥경-용수보살안론-소씨병원-『千金方』-천금의방-천금월령-해상선방-복수론-오장육부도-식의심감-산보-소아약증-『聖惠方』-사시찬요-동인경-『和劑局方』-『簡要濟衆方』-왕악산서-수진비결-소아약증직결-보단요결-대전본초-『三因方』-위생십전방-신교만전방-통진자상한괄요-남양활인서-무구자활인서-상한활인서-상한백문가-상한백증가-조도방-시재의방-『瑣碎錄』-자생경-『簡易方』-옥함경-여거사간이방-여거사결맥정요-단병제강-왕씨이간방-『仁齋直指方』-직지소아방-직지맥결-상한유서-외과정요-태산구급방-주씨집험방-이희범맥결-엄씨제생방-엄씨제생속방-관견대전양방-부인대전양방-수월노반경-상한명리론-『儒門事親』-(雜記九門)-『治病百法』-『十形三療』-치법잡론-□-상한직격-소문현기원병식-보동비요-선명론-『東垣試效方』-동원내외상변-난실비장-탕액본초-비위론-어약원방-담헌방-『得效方』-담헌방-상한지장도-갈씨주후방-■-자오유주-침경지남-옥룡가-『衛生寶鑑』-(澹寮方)-연수서-성제총록-거가필용-필용전서-필용지서-『拔粹方』-서죽당방-소아두진방-『王氏集驗方』-의방대성-의방집성-남북경험방-수진방-성용활유구의-『永類鈴方』-창과통현론-경험비방-안과용목총론-의경소회집-천옥집-격치여론-국방발휘-『經驗良方』-의림방-『烟霞聖效方』-『壽親養老書』-십사경발휘-찬도맥결-『施圓端效方』-오씨집험방-신효명방-『事林廣記』-산거사요-신효방-침구광에서괄-외

34) 인용제서의 수록순에 일치하는 총론 인용서는 굵은 글씨의 한자서명과 서명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곳은 서명을 ()안에 넣어 실제 위치에 적고, 인용제서상의 해당 순서는 □, ■로 표시하였다.

과집험방-이상속단방-소아창진방-추로방-금구선방-비전외과방-서씨태산방-선전제음방-
외과정의-창과정의-옥기미의-권선서-구선활인심-운화현추-『壽域神方』-신은-금단대성-『
衛生易簡方』-금계구현-어의촬요-『備預百要方』-간기방-의경소학-소학의경

범례의 넷째 항에는 문별로 이론, 방약, 食治·禁忌·導引의 순으로 편집하여 게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一. 諸門內論及藥畢書後, 繼書食治·禁忌·導引.”

실제 위의 조항에 의거하여 각문을 살펴보면 이론과 방약, 食治·禁忌·鍼灸·導引의 내용 별로 인용서를 발췌하여 차례로 게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대선후를 단순히 편찬시기 혹은 간행년도로 일괄하여 고찰하거나 인용제서를 단순히 참고문헌으로 보는 시각³⁵⁾보다는 『의방유취』에 수록된 인용서의 게재 원칙으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고 본다.

35). 의방유취 인용제서와 본문중의 실제 인용서가 다소 다르며, 인용문헌의 조사에 있어서도 관련서마다 각기 다르게 집계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의보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역대지방중 6종서가 실제 인용되지 않았고 다수의 서적이 본문중에 인용됨을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자료로는 신동원의 논문 「동의보감의 역대지방은 과연 인용문헌을 적은 것인가?」를 참조.

3.3 고증학의 보고-천금방과 유문사친

『의방유취』에 인용된 천금방은 체제로 보아서 북송교정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四庫全書』가 道藏본의 93권 편차에 論명을 쓰고 있는 점으로 보아 元刻本이나 도장본에 들어간 북송교정본 계열의 異本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알려진 천금방의 여러 판본중 『新彫孫眞人千金方』이나 『眞本千金方』의 체제상 卷一의 藥藏조가 用藥(제6)이나 合和(제7)에 섞여 있어 북송교정을 전후한 流轉本에는 별도 분류되지 않았다.

현존 판본은 원각본과 明(1543년)의 喬世定이 도장에서 採輯한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며 일본의 江戸醫學影北宋本이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을 간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의방유취』 인용서 중 인용비율이 높고 판본 차이가 분명한 천금방을 대상으로 하여 총론부에 수록된 9편을 각 판본별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4 : 천금방 편제의 판본비교(총론부)

천금방의 대조 판본(30권)			도장본(93권)과 유취인용부		비교/ 유취인용부		
편 제	影宋本 『備急千金要方』	『新彫孫眞 人千金方』	『眞本千金要方』	편 제		正統道藏本 『孫眞人備急千金要方』	소목
卷 第 一	序例			卷 之 一	醫學緒論	凡九條	*卷名 *論-
	大醫習業第一	習業第一	大醫習業第一		論大醫習業第一		전제
	大醫精誠第二	精誠第二	大醫精誠第二		論大醫精誠第二		전제
	治病略例第三	理病第三	治病略例第三		論治病略例第三		전제
	診候第四	診候第四	診候第四		論診候第四		전제
	處方第五	處方第五	處方第五		論處方第五		藥對曰 이하 22 행 削
	用藥第六	用藥第六	用藥第六		論用藥第六	玉石部 草藥部 木藥部 獸部 蟲 魚部 菓部 菜部 米部	전반부 論과 例 舉, 말미 2행 削
	合和第七	合和第七	合和第七		論合和第七		例曰 이하 모두 削
	服餌第八	服餌第八	服餌第八		論服餌第八		전반 4행 削
藥藏第九	*合和	*用藥(장약저사법) *六, 七일부출입		論藥藏第九		전제	

張子和가 직접 찬술한 원래의 『유문사친』은 현존 통행본 『儒門事親』의 권1-3권에 해당하며 나머지 8편은 직접 저술한 것이 아니고 문인인 常仲明과 우인 麻知幾 등 후인이 찬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문사친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15권으로 편집된 것은 明의 嘉

36)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p.2114.

靖년간 邵伯堂 刊本(1541)으로 『의방유취』에서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의방유취』의 인용으로 인하여 편집본 이전의 상태와 저작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증자료가 된다. 따라서 『의방유취』에 인용된 儒門事親과 治病百法, 十形三療, 治法雜論, 雜記九門 등은 통행본 유통 직전의 상태를 보지하고 있는 것이며 원서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儒門事親』의 판본에 대한 고증은 李湯卿의 『心印紺珠經』으로부터 비롯되는데, 原道統第一의 子和조에 “金·宛丘人, 氏張, 戴人是也. 有儒門事親書三十篇, 十形三療一帙, 治病百法一帙, 三復指迷一帙, 治法心要一帙, 三法六門, 世傳方一帙”이라고 되어 있다.

또 『의방유취』의 소장자였던 丹波元簡은 자신의 저서인 『醫賸』에서 유문사친의 전래에 대한 글을 적고 그 말미에 『의방유취』를 근거로 입증하였다.

“朝鮮所輯醫方類聚, 多引十形三療, 三法六門. 今正脈本 儒門事親中並有之.”

元簡이 전해지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의방유취』에 수재된 유문사친과 잡기구문 등의 편이 원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저작이라 할 수 있다.

李濂의 『醫史』에서는 “子和草創之, 知機潤色之, 而仲明又摭其遺爲治法心要”라고 했으며, 왕조실록의 관계 기사나 동 시대 다른 의서에는 『張子和方』이라는 서명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것은 천금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유문사친 및 장자화의 저술들이 여러 판본으로 존재했음을 말하며, 『의방유취』 편집 당시 인용서의 판본 선택에 신중을 기했음을 말해준다.

3.4 향약집성방과 3자 대비

그러나 정작 『醫方類聚』 총론부 제론의 발췌 기준과 수록 원칙은 『鄉藥集成方』의 총론부라 할 수 있는 「指南總論」 8편의 논설과의 대비를 통해 좀 더 근접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鄉藥集成方』의 「指南總論」은 『太平惠民和劑局方指南總論』 卷上의 8편 논설을 모델로 편집한 것으로 보이며, 『醫方類聚』의 화제국방편과 거의 비슷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 많은 부분 비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책의 관련 부분과 『和劑局方』의 원문을 3자 대조하여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편의상 사고전서본 「和劑指南」 원문을 기준으로 두 책에서의 인용부분별로 나누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설명하였다. 다만 편집방식이 각자 다른 점을 감안하여 전자의 두 책은 차례까지 비교하고 나머지 부분은 『醫方類聚』의 해당 조문을 밝히는 식으로 정리했다.(이하 표 5 참조)

도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의 논설이 겹치지 않고 각자 다르다. 「論炮炙三品藥石類例」 이외에는 인용편 전체를 수록하지 않았으며, 원문의 내용을 세심하게 제단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방유취』가 단순히 인용서를 적당히 편제한 것이 아니라, 인용서와 원서 및 參校書를 대조한 후 교감작업과 내용분석에 의한 발췌, 산삭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동일한 주제의 논설이라도 각기 인용서의 출전이 다른데, 특히 『의방유취』에서는 인용서의 논설중 재인용된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잘라내어 가능한한 원저 논설만을 수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각 인용의서중 論旨의 원류나 독창적이고 새로운 견해를 나타내는 부분만 여과하여 수록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의방유취』의 방대한 양과 그 인용서적의 수량을 생각할 때, 실로 수천권에 달하는 양을 소화해 내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라 할만하다.

이제 의문점으로 남아있었던 인용서별 수록방식의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다고 본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이 논설과 처방 모두의 원류를 찾아 이론과 처방의 연계 및 입방정신을 전달하고자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世代先後’라는 용어도 원류론의 입장에서 이해되며, 『향약집성방』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分段逐條’ 방식의 편집과정을 볼 때 외양과는 달리 원서의 세분류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不分細目’의 의미가 좀 더 명확히 전달된다.

표 5 :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 총론의 인용부 비교

『太平惠民和劑局方指南總論』		『鄉藥集成方』의 「指南總論」		『醫方類聚』 총론부
論處方法	1/1 “夫處方療疾/百不失一矣”20행	論處方法	○	삭제
	1/2 “夫療寒以熱/當識斯要矣”8행		×	권1 千金方 論處方 성혜방, 화제지남 교감2조
論合和法	2/1 “凡合和湯藥/無所增劇也”28행	論合和法	○	권1 聖惠方 論合和
			「傷寒活人指掌圖 酌準料例」	×
			「本草序例」	×
	2/2 “凡煮湯當以井華水/不必悉依方 說也”6행		○	권1 聖惠方 論合和 2/1과 2/2 사이에 “凡煮湯云用水/ 易爲曉了也”4행 1구가 더 있음.
			「湯液煎造」	권3 施圓端效方 湯液前造式
	2/3 - “凡搗羅丸藥/亦可爲散服”14행 2/6		○	권1 聖惠方 論合和
	2/7 “凡合膏藥/研令極細”11행		×	권1 聖惠方 論合和
	2/8 “凡修鍊神仙/不在次例		○	권1 聖惠方 論合和
			“凡修事諸藥物~”4 행	×
			“凡散藥有云~”8행 “凡圓藥有云~”8행	×
論服餌法	3/1 “夫藥有君臣佐使/蓋此義也”8행	論服藥法	○	권1 聖惠方 論服餌
			「湯液本草」	×
	3/2 “凡服湯欲得/乃更進服”5행		○	권1 千金方 論服餌
	3/3 “凡服丸藥補者/獲益甚少”5행		×	권1 千金方 論服餌 교감3조
	3/4 “凡服瀆酒藥/大損人也”3행		○	권1 千金方 論服餌
	3/5 “凡服毒藥治病/皆須量用也”8행		○	권1 聖惠方 論服餌
3/6 “凡餌湯藥後/豈止愈病而已”6행	○	권1 千金方 論服餌		

『太平惠民和劑局方指南總論』	『鄉藥集成方』의 「指南總論」	『醫方類聚』 총론부
4/1 “夫濟時之道/可謂上工矣”12행		× 권1 聖惠方 論用藥
4/2 “凡有君臣佐使/并各有法也”10행		× 『千金要方』 論
4/3 ~ 4/4 “凡採藥時月/而增用劇益也當爲善”9행		×
	用藥分兩例	「眞珠囊」 ×
	用藥身梢例	×
	用藥丸散例	「仲景」 ×
	用藥酒洗曝乾例	「湯液本草」 ×
		「本草序例」 ×
論三品藥 畏惡相反 5/1 ~ 5/4	“尋萬物之性/不在此例也”50행	× 삭제
論服藥食忌	“有戒勿食/產婦淹穢事”11행	× 권1 和劑局方 論服藥食忌 마지막 1행 삭제.
「論炮炙三品藥石類例」	“玉石部丹砂/分量無虧勝也”	× 권1 和劑局方 論炮炙三品藥石類例 전제
	諸品藥石炮製法度	“石部雲母~” ×

3.5 원서의 도해화

『의방유취』에서는 많은 부분 분류도해가 가능한 내용을 도표로 작성했다. 총론2 雜記九門의 難素撮要究治識病用藥之圖이하 金匱十全之圖까지가 이러한 예증의 하나이다. 이는 『의방유취』에서 이미 인용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소화된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총론중 현재 입수한 성종본의 해당 부분은 도표 ‘初之氣-’ 앞부분이 잘려나간 상태에서 취진판 간행시 보식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원모를 알 수 없다.³⁷⁾ 日人 澁江道純의 취진판과 동양의대 필사본에서 무엇을 근거로 보컬하였는지는 의문점이며, 성종본 원문의 도입과 아울러 진전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현전 통행본 『儒門事親』은 이 부분이 문장으로 되어 있다. 교점본에서는 원서에 표제가 없으나 현존 『儒門事親』에 의거하여 보충하고 ‘撮要圖’라 題하였다. 이하 ‘金匱十全之圖’까지는 원서에 도해로 되어 있으나 인용문으로 대체하고 명칭도 유문사친의 소제목을 색출

37) 현존 성종본 卷之二 版心 十面の 도해부에 일본내 각 소장처의 장서인이 찍혀 있어 적어도 앞의 9쪽 이상이 떨어져 나간 것을 알 수 있다.(원본 마이크로 필름 대조 결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³⁸⁾

이러한 정황은 총론부가 아닌 곳에서도 발견되는데, 권6 五臟門 永類鈴方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인용문이 도표화 되어 있다. 脾胃虛實, 肺大腸虛實, 腎膀胱虛實, 肝膽虛實, 心小腸實熱, 膽, 三焦, 腎三焦虛實의 내용중 臟腑表裏와 五行配屬 등의 설명을 먼저 기재한 후 脈, 病證, 治方을 상, 중, 하로 분단하여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³⁹⁾

4. 실전의서의 복원

- 어의촬요방 복원례

고려 이전의 의학서는 대부분 散逸되어 서명이나 일부 내용만 전할 뿐 完整한 형태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醫方類聚』, 『鄉藥集成方』을 비롯한 조선 전기 의서에 인용된 일부 내용만이 남아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한국본 한의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鄉藥救急方』이 판본 대조를 통하여 복원⁴⁰⁾된 바 있으나 다른 의서나 기록만 남은 몇 종의 의서 들⁴¹⁾은 고려 이전 시기 한의학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고유처방에 대한 수집 정리나 복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해지지 않는 고려 이전의 한의서 중 『御醫撮要』⁴²⁾는 다른 의학서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분량의 내용이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 등에 남아 있다. 특히 『의방유취』에는 중국에서도 이미 없어진 서적이 원문 그대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서의 수집, 복원에 있어서 주요 底本 및 參校書로 이용되고 있다. 근세 일본에서는 丹波元簡을 주축으로 한 고증의학과들이 『의방유취』의 목활자 중간과 함께 30여부의 失傳醫書を 채록하여 『醫方類聚採輯本』을 펴낸 바 있으나 고려 의서인 『어의촬요』는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어의촬요』에 대해서는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에 「新集御醫撮要方序」가 수록되어 전하기 때문에 이 책의 출판사실과 편찬경위 등 간략하나마 기본적인 서지 사항을 알 수 있어 복원을 위한 기본요건이 충실한 편이다. 그리고 한 두개 약물로 구성된 단방을 위

38) 교점본에서는 현전 통행본 『儒門事親』에 보이는 「撮要圖」는 그대로 살려 복원하고 이하 外感鬱病, 六氣治法, 六門病症藥方之圖, 內經濕變五泄, 金櫃十全之圖에 이르는 다수의 도표를 문자로 개변시키거나 일부를 삭제하였다. (교점본 1분책 p.33 주①, ③, p.36 주⑬, p.37 주④, ⑤, ⑧ 참조)

39) 이 부분도 역시 교점본에서는 읽기 편하게 문자화하였다고 주석에 밝히고 있다. 원서를 자의적으로 훼손시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교점본 1분책, p.133-135. 참조)

30) 申榮日. 『鄉藥救急方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1994.

41) 『東人經驗方』, 『三和子鄉藥方』, 『濟衆立效方』, 『鄉藥古方』, 『鄉藥易簡方』, 『鄉藥惠民經驗方』 등.

42) 기록상 이 책의 서명으로 『신집어의촬요방』, 『어의촬요방』 등이 사용되었으며, 약칭으로 『촬요』, 『어요』 등이 가능하나 본고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실전된 원서를 지칭하는 경우 『어의촬요』로 통일하여 표기했다. 또 이와 구별해서 『의방유취』 내 인용편명을 지칭하는 경우에 어의촬요편, 체록된 처방의 경우 어의촬요방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주로 편성된 『향약구급방』과는 달리 여러 약물로 구성된 복방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어 고유의학 전통과 중국의학의 접점을 이루는 의학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고려 중기 이후의 의학의 면모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어의촬요방 복원 방법과 편집구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 및 각 처방의 인 용부와 대조 방서를 대비해 봄으로써 차후 실전 의서의 복원연구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御醫撮要方』 蒐輯本 目次

- | | | |
|-------------|------------|----------------|
| 1. 小續命湯 | 45. 養脾丸 | 89. 茯神丸 |
| 2. 靈寶丹方 | 46. 小理丸 | 90. 巴戟丸 |
| 3. 神效無比牛黃丸方 | 47. 橘皮丸 | 91. 楮實丸 |
| 4. 至寶丹 | 48. 化痰玉壺丸 | 92. 鹿角膠煎 |
| 5. 牛黃清心圓 | 49. 沈香湯 | 93. 五補丸 |
| 6. 摩挲圓 | 50. 六一湯 | 94. 人參丸 |
| 7. 薄荷煎圓 | 51. 白朮湯 | 95. 摩風膏 |
| 8. 資壽方黑龍丸 | 52. 豆蔻湯 | 96. 檀香丸 |
| 9. 木香丸 | 53. 參香湯 | 97. 朱砂丸 |
| 10. 大靈寶丹 | 54. 厚朴湯 | 98. 白乳湯 |
| 11. 愈風丹 | 55. 金粟湯 | 99. 草豆蔻湯 |
| 12. 碧琳丹 | 56. 高良姜理中丸 | 100. 金露湯 |
| 13. 餅子急風丹 | 57. 白豆蔻湯 | 101. 玉液湯 |
| 14. 宣補大黃丸 | 58. 十全溫白丸 | 102. 龍腦湯 |
| 15. 靈寶丸 | 59. 耆婆萬病丸 | 103. 參苓湯 |
| 16. 七聖丸 | 60. 紫蘇子丸 | 104. 生姜湯 |
| 17. 香犀丸 | 61. 胡椒理中丸 | 105. 內鍼牛黃丸 |
| 18. 菊花湯 | 62. 皂莢丸 | 106. 萬靈膏 |
| 19. 防風浴湯 | 63. 生犀丸 | 107. 麒麟膏, 麒麟竭膏 |
| 20. 白虎湯 | 64. 洗肝湯 | 108. 附子膏 |
| 21. 辟溫神明丹 | 65. 辰砂丹 | 109. 五方帛膏 |
| 22. 神明丹 | 66. 恒山丸 | 110. 猬皮丸 |
| 23. 三拗湯 | 67. 海蛤丸 | 111. 軟玉膏 |
| 24. 駐景丸 | 68. 牽牛湯 | 112. 大黃泥 |
| 25. 細辛湯 | 69. 水脚黑豆煎 | 113. 香泥膏 |

- | | | |
|-----------|-----------|------------|
| 26. 荊芥湯 | 70. 水腫黑豆煎 | 114. 走馬膏 |
| 27. 硼砂丸 | 71. 神功丸 | 115. 敗毒膏 |
| 28. 解毒雄黃丸 | 72. 麻仁丸 | 116. 神效貼灸膏 |
| 29. 金消丸 | 73. 梅連丸 | 117. 溫白丸 |
| 30. 含化龍腦丸 | 74. 內補丸 | 118. 七宣丸 |
| 31. 消石膏 | 75. 駐車丸 | 119. 艾葉煎丸 |
| 32. 耳膏 | 76. 阿膠丸 | 120. 乾地黃丸 |
| 33. 黃芪湯 | 77. 柏葉丸 | 121. 薄荷湯 |
| 34. 七氣湯 | 78. 石榴皮湯 | 122. 人參湯 |
| 35. 生氣湯 | 79. 止瀉無比丸 | 123. 杏霜湯 |
| 36. 九痛丸 | 80. 八味圓 | 124. 保生丸 |
| 37. 五京丸 | 81. 免肝丸 | 125. 定志丸 |
| 38. 肉蓯蓉丸 | 82. 杞菊丸 | 126. 十水腫散 |
| 39. 補骨脂丸 | 82. 巴戟天丸 | 127. 人參煎 |
| 40. 熟乾地黃丸 | 84. 椒紅丸 | 128. 止衄吹鼻散 |
| 41. 青橘皮丸 | 85. 補益石斛丸 | 129. 赤芍藥散 |
| 42. 澤瀉丸 | 86. 鹿茸丸 | 130. 艾葉散 |
| 43. 風脚黑豆煎 | 87. 黃芪丸 | 131. 乳汁不通散 |
| 44. 理中丸 | 88. 蓯蓉丸 | |

4.1 복원방법

『향약집성방』에서는 각 병증문 처방의冒頭에 기재된 출전서명을 하나하나 열람하면서 12개의 처방을 발췌하였다.

『의방유취』에서는 먼저 편집체계에 따라 각 병증문의 「어의촬요」편을 발췌하였다. 다음으로 본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산복원본 『의방유취』원문을 이용하여 전산 검색하였다. 전산 검색에서는 오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御醫撮要’, ‘御醫撮要方’, ‘御醫’, ‘撮要’, ‘御要’ 등의 가능한 한 검색어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누락의 경우를 대비하였다.

이는 『의방유취』의 「범례」중

“한 문안에 한 가지 약방이 거듭 나오는데 그 적응증·약재·먹는 방법에 다른 점이 없으면 처음 보이는 곳에 아무 처방과 같다고 적고, (내용이)대개는 같고 조금 다르면 그 다른 부분만을 따서 첨부했으며 조금만 같고 대부분이 다르면 처방 전체를 붙여 적었다”⁴³⁾,

“모든 방서의 이론은 중복된 것을 빼버리고 적지 않되 ‘어느 책과 같다(某方同)’고 적고 혹 글의 내용은 동일하되 앞뒤가 조금 다르면 대략 머리말을 들어 쓴 다음에 같은 부분은 “云云”이라고 적고 이어서 뒷말을 썼다”⁴⁴⁾,

“한 가지 약방의 증상과 치료가 여러가지 병에 겸한 경우에는 각 문에 나누어 적지 않고 다만 본래의 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에 의거하여 적었다”⁴⁵⁾,

“대개 같은 처방이 다시 나오는 것은 처음 나오는 방서에 붙여 놓았다. 만약 ‘得效方’이나 ‘玉機微義’ 등과 같이 꼬리를 물고 연달아 쓰인 경우에는 또 본방에 있는 약방명만 쓰고 주에 처방은 아무 책에 있다(方見某方)고 하였다”⁴⁶⁾,

“모든 方書의 본문에 ○(圈點)이 쳐진 것은 한 글자 간격을 비우고 적었다. 이 책에서 덧붙여 기록한 경우에는 처음 붙인 방서의 이름위에 ○을 쳐서 원문과 구별하였다. 약재 밑에 이 책에서 붙인 주도 역시 모두 ○을 표시했다”⁴⁷⁾,

“한 처방 안에 다른 책의 것을 덧붙여 기록할 때는 처음 쓰는 데만 책명을 제대로 다 적고 계속하여 쓰는 경우에는 약칭해서 거명했다. 예컨대 처음에 ‘巢氏病源’이라고 적었다면 그 다음에는 ‘巢源’이라고만 적는 것과 같은 종류이다”⁴⁸⁾

등에 근거하여 『의방유취』 어의촬요편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비교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타 인용서 각 편에서 발췌된 어의촬요의 기록은 모두 36조였다.

이상 크게 3가지 방법을 통해 발췌된 인용문은 2차로 상호 대조를 통하여 중복 처방을 수합한 결과 129조의 처방이 정리되었다. 『향약집성방』, 혹은 『의방유취』내 어의촬요편과 여타 편에서의 중복하여 수록한 처방들은 대개 약간에 문자 출입이 있으나 처방구성이나 주치증이 다른 경우가 아니면 동일 처방으로 간주하고 취합하였다. 이때 원문 문자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인용원문의 전제를 원칙으로 하는 『의방유취』의 발췌문을 정문으로 선택하였고 대조 인문은 고안에 함께 수록하여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의방유취』 어의촬요편에는 처방명만 수록된 경우가 적지 않아 『의방유취』 원문내 동명처방이나 처방사전을 검색하여 대조하면서 최대한 보궐을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부분의 처방이 용도가 광범위하고 동명처방이 너무 많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다만 후대 의서인 『分門瘧疫易解方』에서 1조를 발췌하여 보궐하는데 그쳤다.

43) “一門內一藥重出，而治證·藥材·服法無加減，則于初見處，書某方同；大同小異，則其異者分附；小同大異，則 全方附錄。”

44) “諸方論去其重複不書，某方同或文同，而首尾稍異，則略舉首語，而書云云，連書其尾語。”

45) “一藥證治兼諸病者，不分書各門，但依本方所載之門書之。”

46) “凡藥再見者，于初見方附之。若『得效方』·『玉機微義』等首尾相連之書，則又于本方只書藥名，注云方見某方。”

47) “諸方本文加圈者，空一字書之。今附錄者，首附方名上加圈別之。藥材下今附注亦皆圈之。”

48) “一藥內他方附錄時，首書者備舉方名，繼書則略舉。如首書『巢氏病源』，則繼書『巢源』之類。”

또 중복된 처방중 五京丸과 厚朴湯은 『향약집성방』에 처방명이 없었으나 의방유취와의 대조로 처방명을 찾아 보낼하였고, 전혀 방명이 없는 것(十水腫散, 乳汁不通散)은 주치증이나 다른 처방명과 구별되는 특색을 찾아 대입시켜 일단 분류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비교란에 부기하였다.

4.2 편집방법-문의 구성

『어의촬요』의 편집체제에 관해서는 서문에 의거하여 2권으로 분권된 것 이외에는 서지나 목차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여러 방서중 가장 긴요한 내용을 가려 뽑아 덧붙였다고 적은 것으로 보아 당시 많이 사용되던 唐宋시기 의서와 전래 의서의 내용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서문에 나타나는 『本草』·『千金』·『斗門』·『聖惠』 등의 의서가 신성시되고, 권질이 너무 많아 위급할 때에 열람하기 곤란하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위의 4종 이상의 의서에서 필수 처방이 다소 발췌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分爲二卷，又添附諸方之最要者，使人繕寫，名之曰『御醫撮要』.....”

『의방유취』내 『어의촬요』 복원문중 타 의서의 인용편에 수합된 경우의 예를 조사하여 인용 가능성을 파악해 보면 金匱方, 斗門方, 千金方, 聖惠方, 簡易方, 和劑局方, 聖濟總錄, 衛生寶鑑 등이 검출된다. 이중 『위생보감』은 元代 羅天益이 1343년경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어의촬요』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어의촬요』 편찬시 참고서 내지 인용서류로는 『본초경』, 『금궤방』, 『두문방』, 『천금방』, 『성혜방』, 『간이방』, 『화제국방』, 『성제총록』 등 주로 당송시기의 문헌들이 주로 이용되었으리라고 본다.

또 2권으로 분류 재편된 과정에서 병증별 분류가 이루어졌으리라 여겨지며 현재 의의촬요방이 인용된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의 인용편목을 활용하여 일정 부분의 편제를 복구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세목 차서와 권별 분류는 더욱 난점으로 막연하기만 하다. 궁리 끝에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향약구급방』이 분량, 편찬 목적, 편집방식, 용어 등 여러 면에서 고려 중기 이후 의서의 특성을 담고 있어 유사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검색 정리된 『어의촬요』 처방의 병증 항목과 『향약구급방』의 목차를 비교 검토했으나 부합되는 점이 적어 일단 본고에서는 『의방유취』의 병증 각문의 순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복원문의 차서와 병증 각문의 분류는 원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며, 다른 자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향약집성방』 인용문 12조는 대부분 유사 항목에 편입시킬 수 있

어 별도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

아래는 『의방유취』의 병증 각문(91문중 부인, 소아는 대문만 기재)의 체제인데, 『어의촬요』 처방이 수록된 해당 문을 밑줄로 표시하여 대비하였다.

「總論」·「五藏門」·「諸風門」·「諸寒門」·「諸暑門」·「諸濕門」·「傷寒門」·「眼門」·「齒門」·「咽喉門」·「口舌門」·「耳門」·「鼻門」·「頭面門」·「毛髮門」·「身體門」·「四肢門」·「血病門」·「諸氣門」·「諸疝門」·「陰癩門」·「諸痺門」·「心腹痛門」·「腰脚門」·「脚氣門」·「脾胃門」·「三焦門」·「飜胃門」·「嘔吐門」·「膈噎門」·「霍亂門」·「沙證門」·「眩暈門」·「宿食門」·「積聚門」·「咳逆門」·「咳嗽門」·「聲音門」·「諸瘡門」·「消渴門」·「水腫門」·「脹滿門」·「黃疸門」·「諸淋門」·「赤白濁門」·「大小便門」·「諸痢門」·「泄瀉門」·「諸虛門」·「勞瘵門」·「癩冷門」·「積熱門」·「火門」·「虛煩門」·「驚悸門」·「健忘門」·「諸汗門」·「癩癩門」·「中惡門」·「解毒門」·「酒病門」·「蟲毒門」·「諸蟲門」·「辟蟲門」·「蟲傷門」·「獸傷門」·「癰疹門」·「疥癬門」·「諸臭門」·「癰疽門」·「丁瘡門」·「丹毒門」·「癰癰門」·「諸癰門」·「癰瘡門」·「痔漏門」·「便毒門」·「金瘡門」·「諸刺門」·「折傷門」·「諸瘡門」·「膏藥門」·「湯火傷門」·「漆瘡門」·「怪疾門」·「救急門」·「雜病門」·「諸湯門」·「諸香門」·「養性門」·「婦人門」·「小兒門」

소아질환의 처방이 빠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제풍문 이하 병증 각문이 비교적 다양하게 검출되어 종합 방서로서의 체제를 구비하고 있다.

4.3 복원내용의 요약

검색된 어의촬요방의 출전은 『향약집성방』에서 12방, 『의방유취』에서 127방을 발췌한 것이다. 이 중 『의방유취』내에서 중복된 것 3방, 『향약집성방』과 중복된 것이 6개 방으로 전체 어의촬요방은 130방이었다⁴⁹⁾. 또 『分門癩疫易解方』 鎖禳門, 疫癘病候에 ‘御醫撮要方 神明丹’ 1조문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는 『의방유취』 권63 傷寒門37 御醫撮要편에 처방명만 소개되어 있는 ‘辟瘟神明丹’으로 추정되나 확증할 수 없어 일단은 별도의 처방으로 집계하였다. 따라서 적응증이나 처방 구성을 대조하여 중복 수록이 확실한 처방 9조를 수합하여 총 131조의 방문을 輯佚하였다.

수집된 어의촬요방에 대한 정리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괄적인 분석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의방유취』내 수록처방 127방 가운데 각 병증문의 어의촬요 본편에서 채록한 것이 90조였다. 또한 타 의서 인용내용중 수합되어 비교 인용된 경우, 천금방편(2), 금계방편(1), 성혜방편(15), 간이방편(1), 화제국방편(13), 성제총록편(4), 위생보감편(1) 등에서 37방을 수집하였다. 이들 37방은 대개 先代 醫書의 주요 처방과 대조하여 정리된 것이다.

49) 신순식·최환수 외. 「高麗醫書에 대한 研究」. 1996: 389.에는 『향약집성방』에서 12방, 『의방유취』에서 88개의 처방 등 모두 100방중에 중복된 것이 6방이라고 하였는데, 수치상 오차가 있다.

이것은 동명의 처방이나 유사처방을 한 곳에 모아 비교 정리한 『의방유취』의 독특한 편집방식에 의거한 것으로 그 취합 방법은 앞서 소개된 범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편집방식을 재분석하여 채집한 37조의 어의촬요 처방들은 다음과 같은 의서의 유사처방들과 함께 비교 수제 되어 있었다. 바꿔 말하자면 이들 의서의 처방과 중복이나 인용, 또는 유사한 처방내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簡易方, 經驗秘方, 經驗良方, 古今錄驗, 管見大全良方, 救急, 驪仙活人心, 南北經驗方, 澹寮方, 得效方, 拔粹方, 備預百要方, 四時纂要, 三法六門, 三因方, 聖濟總錄, 聖惠方, 小品, 袖珍方, 神巧萬全方, 御藥院方, 嚴氏濟生方, 延年方, 永類鈴方, 玉機微義, 王氏易簡方, 王氏集驗方, 運化玄樞, 衛生簡易方, 衛生寶鑑, 醫方大成, 醫方集成, 濟生方, 直指方, 千金方, 千金月令, 千金翼方, 崔氏外臺, 和劑局方

『의방유취』의 각 병증문별로 게재순서에 따라 분류한 어의촬요방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37개 문).

風門(19), 暑門(1), 傷寒門(2), 眼門(1), 齒門(2), 咽喉門(4), 鼻門(1), 耳門(2), 血病門(1), 氣門(2; 嘔吐門(1)과 중복), 心腹痛門(2), 腰脚門(3), 脚氣門(3), 脾胃門(12; 酒病門(1)과 중복), 霍亂門(2), 宿食門(1), 積聚門(1), 咳嗽門(6), 瘡門(2), 水腫門(5), 大小便門(2), 痢門(8; 중복 1방), 泄瀉門(1), 虛門(14), 驚悸門(2), 健忘門(1), 中惡門(1), 酒病門(7; 비위문과 중복 1방-비위문), 癰疽門(4; 膏藥門(1) 중복), 諸瘻門(1), 痔瘻門(2), 瘡門(5), 膏藥門(1; 癰疽門 중복), 雜病門(7), 婦人門(2)

위와 같이 의방유취 수록순에 의거하여 재편된 『어의촬요』의 131개 처방을 각기 채록된 병증문과 대조방을 조사하여 도표로 정리하였다. 비교란의 □ 표시는 방명만 수록되고 처방 내용이 없는 경우이다. 처방명만 있고 처방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경우, 傷寒 2조, 咳嗽 3조, 補虛 13조 등 총 18방으로 세 부분의 병증문에 집중적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것은 유취 편찬 당시 이미 『어의촬요』의 원본이 일부 결실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며, 또한 병증 각문의 편제와 목차를 구비하고 있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표 6 : 어의촬요방 출전별 복원대조표 예시

처방명	문별 인용부		의방유취내 대조 인용서	비고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白虎湯		권26 諸暑門2 御醫撮要		
辟溫神明丹		권63 傷寒門37 御醫撮要		□ 『分門瘟疫易解方』 鎮禳門 疫癘病候 神明丹 참조.
三拗湯		상동		□
駐景丸		권66 眼門3 聖惠方2 治眼 昏暗諸方	聖惠方,簡易方,管見大全 良方	
細辛湯		권73 齒門3 御醫撮要		
荊芥湯	권34 齒牙門 牙齒疼痛	상동		
礪砂丸		권74 咽喉門2 和劑局方 咽 喉	和劑局方,管見大全良方	
解毒雄黃丸		상동	拔粹方,玉機微義,備預百 要方,王氏集驗方,醫方大 成,醫方集成,南北經驗方, 袖珍方,永類鈴方,衛生簡 易方,衛生寶鑑,三因方,簡 易方,直指方	
金消丸		권75 咽喉門3 聖濟總錄 咽 喉 喉痺	聖濟總錄	
含化龍腦丸		권75 咽喉門3 聖濟總錄 咽 喉 馬喉痺 龍腦丹砂丸方	聖濟總錄	
止衄吹鼻散	권28 鼻衄門 鼻衄			
消石膏		권78 耳門2 聖濟總錄 久聾 麒麟蝎丸方	聖濟總錄	
耳膏		권78 耳門2 御醫撮要		
黃芪湯		권86 血病門3 御醫撮要		
七氣湯		권87 諸氣門2 和劑局方 一 切氣	和劑局方,三因方,澹寮方, 直指方,簡易方御藥院方, 醫方大成,醫方集成,袖珍 方,永類鈴方	
生氣湯		권87 諸氣門2 和劑局方 一 切氣 권105 嘔吐門2 御醫撮要	和劑局方	

처방명	문별 인용부		의방유취내 대조 인용서	비고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九痛丸		권92 心腹痛門1 金匱方 胸痺心痛短氣病脈證治	三因方,得效方,澹寮方,玉機微義,千金方,嚴氏濟生方,醫方大成,永類鈴方,南北經驗方,醫方集成,袖珍方	
五京丸*	권23 心痛門 心腹痛	권94 心腹痛門3 御醫撮要		『향약집성방』에 처방명 無
肉苳蓉丸		권96 腰脚門3 御醫撮要		
補骨脂丸		상동		
熟乾地黄丸		상동		
青橘皮丸		권98 脚氣門3 御醫撮要		
澤瀉丸		상동		
風脚黑豆煎		상동		
理中丸		권100 脾胃門2 和劑局方 脾胃	和劑局方	
養脾丸		상동	和劑局方,澹寮方,醫方大成,醫方集成,南北經驗方,袖珍方,永類鈴方	
小理丸		권102 脾胃門4 御醫撮要		
橘皮丸		상동		
化痰玉壺丸		상동		
沈香湯		권102 脾胃門4 御醫撮要 권165 酒病門2 御醫撮要		
六一湯		권102 脾胃門4 御醫撮要		
白朮湯		상동		
豆蔻湯		상동		
參香湯		상동		
厚朴湯*	권27 脾胃門 脾胃諸證	상동		『향약집성방』에 처방명 無
金粟湯		상동		
高良姜理中丸		권108 霍亂門2 御醫撮要		
白豆蔻湯		상동		
十全溫白丸		권109 宿食門 御醫撮要		
耆婆萬病丸		권111 積聚門3 和劑局方 積聚	和劑局方,簡易方	
紫蘇子丸		권115 咳嗽門2 聖惠方1 咳嗽 治久咳嗽諸方	聖惠方,神巧萬全方	
胡椒理中丸		권115 咳嗽門2 聖惠方1 咳嗽 治咳嗽短氣諸方	聖惠方,和劑局方,管見大全 良方,得效方,醫方集成,南北經驗方,袖珍方,永類鈴方	

처방명	문별 인용부		의방유취내 대조 인용서	비고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杞菊丸		권154 諸虛門12 御醫撮要		<input type="checkbox"/>
巴戟天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椒紅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補益石斛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鹿茸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黃芪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茯苓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茯神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巴戟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楮實丸		상동		<input type="checkbox"/>
鹿角膠煎		상동		<input type="checkbox"/>
摩風膏		상동		<input type="checkbox"/>
五補丸		권197 雜病門3 御醫撮要 七宣丸方		<input type="checkbox"/> 七宣丸방문중언급
人參丸		권158 驚悸門 御醫撮要		
定志丸	권15 驚悸門 驚悸諸證			
檀香丸		권159 健忘門 聖濟總錄 心 健忘	聖濟總錄	
朱砂丸		권161 中惡門2 聖惠方2 治 中惡諸方	聖惠方	
白乳湯		권165 酒病門2 御醫撮要		
草豆蔻湯		상동		
金露湯		상동		
玉液湯*		상동		본문에 '玉'자결락. 酒病門目錄에 의 거 보임.
龍腦湯		상동		
參苓湯		상동		
生姜湯		상동		

『의방유취』의 「범례」에 근거하여 유취내 각 문에 산재하여 인용된 『어의촬요』 127방을 채집하고 『향약집성방』에서 발췌한 12방 및 『분문운역이해방』 1조문 등을 채록하여 취합 정리한 결과 총 131조의 방문을 복원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향약집성방』을 위주로 파악한 내용에 비해 훨씬 많은 분량의 처방이 남아 있었으며, 판본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말해 준다.

특히 『어의촬요』는 고려 왕조 누대의 경험방들로서 중국의서와의 대조를 통해 중세 궁중의약의 면모를 알 수 있어 의사학적 가치가 크다. 또 당시 중시되던 중국의서중 정수를 발췌하여 수록하므로써 여말선초에 신진의학설의 수용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가치가 인정된다. 이러한 판단은 수집 복원된 처방중 3분의 2 가량의 처방이 중국 의서와 비교 취

합되지 않았으며, 유사 처방이라 할지라도 『어의촬요』 수록 처방이 다방에서 전래된 고유의 전통처방이거나 중국의학의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인 경험이 가미된 특색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맺음말

조선의 의방유취 편찬과정과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전문의서의 출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서지학적 고찰을 통하여 소략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를 지득할 수 있었다.

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의방유취 편찬 관련 기사와 書目類 및 조선전기의 관련 의학 문헌을 고찰한 결과 세종대에 初編된 의방유취(1443-1445년, 365권, 草稿本)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곧바로 간행되지 못하고 세조대 교정과정(1459-1464년, 校正本)을 거쳐 성종대(1477년)이르러서야 3년여에 걸친 관각작업 끝에 비로서 간행된다. 이 과정에서 266권 264책으로 내용이 집약되어 정제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지면으로 인해 소량만이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역시 실전되어 남아있지 않지만, 중종대에 許琮의 주도하에 편찬된 『醫門精要』는 의방유취를 저본으로 하여 50권으로 다시 축약시킨 것으로 의방유취의 또 다른 판본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2. 조선판본의 조사과정에서 『救急方』, 『瘡疹集』, 『救急簡易方』, 『救急易解方』, 『續辟瘟方』 등 조선전기의 많은 의서가 의방유취의 편찬을 선후로 하여 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세조대 간행된 『救急方(언해)』 과 근년에 중국 저장성 도서관에서 발견된 『瘡疹集』은 의방유취의 해당 부분과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어 의방유취의 편찬과 교정 과정을 밝혀주는 단서를 지니고 있다. 또 『瘡疹集』에 나타나는 任元濬의 註釋은 당시 조선 의가의 의론해석과 수입된 중국의학의 자국내 수용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임원준의 창진집은 단순 방역서의 발행이 아닌 조선의학 초기의 이론과 실제 치료가 겸비된 전문의서의 저술로 보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조선 전기 의학은 의방유취와 같은 거대 의학서의 편찬 및 교정, 간행 과정을 거듭하면서 가시적 정보자원을 비축시킬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상호 되먹임 관계에 놓이게 된 醫書 習讀 및 類抄작업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계층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 때 축적된 소양과 지식은 時用 醫書의 간행을 통해 다시 확대 재생산되었다.

『의방유취』의 편집체계와 인용방식을 분석한 결과, 『의방유취』 총론은 大門, 引用書, 引

用篇, 諸論의 4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면 입론, 치법, 처방, 용약의 4단계 복합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인용방식상 「凡例」에 의거한 배열순서는 「引用諸書」의 순서를 원칙으로 준용하였으며, 각 문안에서는 이론, 처방, 식치, 금기, 침구, 도인 등으로 분류하여 게재하였다.

인용서중에는 道藏本 『千金方』과 『儒門事親』 등 현재 통용되는 판본과 다른 판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아 傳存本 중에서도 학술가치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편찬 과정은 인용문의 선정, 발췌 및 삭제, 해당 내용의 대조를 통한 교감과 추록, 주석, 인용문의 도해화와 요약 정리, 분류 취합 등의 엄정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인용방식을 살펴보면 『의방유취』편집자의 의학지식 선별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데, 원론과 대법은 선대의 논설을 중시하면서 처방과 약물, 임증례 등은 비교적 후대의 상세하고 정리된 세부 지식을 위주로 선택하여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방유취』는 인용원문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감하여 원저자의 원의와 논지를 윤색시키거나 변형시키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구조와 일관성 있는 서술내용을 유지시킨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의방유취의 편집체계를 분석하고 인용방식을 역으로 적용하여 실전된 고려의서 어의촬요방을 상당부분 복원해 내었으며, 채집한 처방을 당시 통용하던 중국의서와 대조한 결과 고려의 독자적 의학전통이 담긴 고유 의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